

식민시대 안데스의 젠더: 원주민 여성을 중심으로*

강정원**

단독/서울대학교

Kang, Jung-Won (2014) "Gender Ideologies and Relations in the Colonial Andes: The Experience of Indigenous Women"

ABSTRACT

Spanish colonialism in the Andes provoked intense and comprehensive changes in the gender ideologies and relations of the indigenous societies. Even though traditional rules based on the principle of complementarity continued to guide gender relations in the colonial native societies, its influence was radically weakened as Spanish patriarchy started to dominate the gender relations of the Andes as a whole.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plore how indigenous women in the colonial Andes confronted such forms of racial and gender discrimination and how their strategies affected their inter/extra racial and gender relationships. Although gender and race functioned as major factors determining native women's experiences, this article recognizes that native women in the colonial Andes were quite differently positioned in terms of their access to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resources, depending upon their social statuses. As such, the comparison of native elite and non-elite women comprises another important inquiry of this article. In order to explore how race, gender, and class complexly interacted in the colonial Andes, this article examines indigenous women's experiences in three arenas: sexuality and marriage practices, economic activities, and political leadership. In conclusion, this article notes that gender relations of indigenous societies in the colonial Andes were not dictated by any single gender ideology whether it was the traditional principle of complementarity or patriarchal suppression. Instead, these two conflicting gender norms were flexibly and selectively combined as indigenous women constantly struggled to defend their identities not only as women but also as members of indigenous communities.

Key Words: Andes, gender, colonialism, indian community, Inca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08-362-B00015).

** Jung-Won Kang is HK research professor in the Institute of Latin American Studie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Email: moises1@snu.ac.kr).

서론

1532년 프란시스코 피사로의 부대가 현재 페루의 해안에 도달하기 이전에 안데스 일대는 이미 잉카라는 강력한 세력에 의해 통합된 상황이었다. 남아메리카뿐만 아니라 아메리카 전역에 걸쳐 가장 팽창주의적이고도 가장 성공적이었던(최단기간에 칠레 중앙에서 콜롬비아 남단에 이르는 광대한 대륙을 정복했다는 의미에서) 잉카 제국은 안데스에 공존하던 상이한 문화 전통들을 잉카 왕조를 중심으로 하는 중앙집권적인 체제로 편입시켰다. 잉카와 불과 한 세기 남짓 간격으로 벌어진 스페인의 정복은 정복된 지역의 노동력과 자연 자원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주장하고, 종교체제를 통해 왕권을 정당화하고 강화했다는 점에서 잉카와 동일했다. 하지만 이들이 종속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과 태도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다. 스페인에게 아메리카의 문명은 서구 문명에 견줄 수 없는 열등한 것이었다(Graubart 2000a, 218). 정복 직전 이베리아 반도에서 거둔 재정복(*reconquista*)으로 확산되었던 ‘피의 순수성’¹ 논리와 맞물려 스페인 정복자들에게 소위 ‘신세계’ 토착민들의 언어나 피부색, 신체적 특징들을 비롯한 일련의 차이들은 교화나 동화 등의 정책적인 차원으로는 개선될 수 없는 선천적이고도 계통학적인 차이를 의미했다. 다시 말해 스페인 정복자들에게 아메리카 토착민들은 자신들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이질적이고 열등한 존재였다(Barragán 2011, 117-119; Cope 2009, 250). 이에 따라 스페인 식민 체제에서 원주민들은 통제와 훈육 및 보호가 필요한 “법적 미성년자”(Hemming 1993, 368)로 규정되었고, 선천적인 한계로 인해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권한을 부여받기에 부적합한 존재로 인식되었다. 요컨대 스페인 식민 체제는 본질적으로 토착민의 열등성(동시에 식민 세력의 우월성)을 전제로 했으며, 미타(*mita*)나 엔코미엔다(*encomienda*) 등 논란을 일으키던 원주민 강제 부역 제도 역시 이에 근거해 정당화되었다.

반면, 잉카 정복자들에게 있어 안데스 토착민들은 계층적으로는 차별화되지만 계통학적으로는 구별되지 않는 일종의 친족관계 구성원으로 정의되었다.

1 ‘피의 순수성’(*limpieza de sangre*)은 본래 이베리아 반도에서 순수 기독교도들과 유대교, 이슬람교 개종자들을 구분하고, 순수 기독교도들의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해 생겨난 개념이다. 이베리아 반도에서 피의 순수성이 종교적 차이를 구별하기 위해 사용되었다면, 아메리카 대륙에서 이 개념은 인종간 차이를 드러내기 위해 사용되었고, 스페인 출신들과 여타 인종들을 차별화하는 역할을 했다(Burns 2011, 58-60; Kuznesof 1995, 160).

정복 이전부터 안데스의 다양한 종족 집단들을 특징짓던 호혜적인 친족관계는 잉카 시대에도 가장 기본적인 사회관계를 구성했고, 호혜성이라는 규범은 잉카 왕조와 속민들의 관계를 규정하는 핵심적인 논리가 되었다. 잉카의 통치권에 놓인 안데스 토착민들은 미타(*mit'a*)² 부역과 공물 납부의 의무를 지녔지만, 징수된 공물 가운데 일정량은 가뭄이나 전투 등 위급한 상황에 대비해 비축되었고, 토착민들은 잉카에 노동력과 공물을 제공한 대가로 식량을 제공받았다. 비록 현물 형태의 공물 납부가 이루어졌지만 잉카는 속민들에게 현물이 아닌 노동력 제공의 의무만을 부과한다는 원칙을 내세웠고,³ 속민들의 노동에 대한 대가로 음식을 제공하고 혼인을 중재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이를 토대로 잉카는 정복 이전부터 안데스에 지켜져 오던 생산관계인 밍카(*mingka*)의 구도를 유지하는 동시에 억압적인 정복자가 아닌 기존의 전통적인 친족 집단의 권력자라는 역할을 대신할 수 있었다(Gose 2000). 중앙집권적이고 고도로 분화된 권력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지방의 자율성과 고유한 체제를 존중하려 했던 잉카의 통치 방식은 종교에서도 확인된다. 왕조의 정통성을 신성혈통에서 찾았던 신정국가인 잉카는 비라코차(Viracocha)를 창조신으로 하여 아버지신인 태양(Inti 인티)과 어머니신인 달(Quilla 키야)을 가장 전능한 신성들로 숭배했다. 하지만 정복 이전부터 안데스의 다양한 종족 집단들에서 숭배되던 신성들 역시 대부분 잉카의 종교체제로 이식되어 재해석되었다. 예를 들어 극도로 추상적인 비라코차, 태양신, 달신에 대한 관념과는 달리 천둥의 신(Illapa 이야파, 또는 Rayo 라요)이나 대지의 신(Pachamama 파차마마) 등 그 하위에 속하는 신성들에 대한 숭배는 기후변화, 농업활동, 출산, 전쟁 등 안데스 토착민들 일상에 다방면으로 침투해 있었고, 잉카 이전부터 안데스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실천되고 있었다. 잉카는 이 신성들에 대한 숭배를 공식적인 신앙 체계로 수용했고, 이를 통해 제국의 종교 체계에 민간의 신앙과 의례가 흡수될 수 있게 했다(Silverblatt 1987; Steele 2004). 다시 말해, 잉카의 공식적인 종교 체계와 비공식적인 민간 신앙들은 서로 배타적인 관계에 있기보다는 새로운

2 잉카 제국의 강제부역제도인 미타(*mit'a*)와 스페인 식민체제에서의 미타(*mita*)를 구별하기 위하여 전자는 케추아어 표기법을 그리고 후자는 스페인어 표기법을 따랐다.

3 예컨대 속민들이 물고기나 농작물 등의 현물을 납부할 경우, 이는 본래 왕실 소유의 자원으로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속민들은 그들이 생산한 물품을 납부한 것이 아니라 이 물품이 본래의 주인인 왕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동력을 제공한 것으로 해석되었다(Gose 2000, 85).

위계질서 내에서 조화롭게 공존했다.

잉카는 이처럼 종속된 지역의 사회 규범과 가치 체계가 제국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다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Orlove 1985, 48), 그럼에도 잉카의 정복 사업이 종속된 지역의 사회 질서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젠더는 잉카 통치 체제의 양가적인 속성(간접적인 지배에 의존하면서도 강력하고 보편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에서)을 반영하는 동시에 잉카의 위계질서를 형성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원리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잉카 시대 젠더의 중요성은 무엇보다도 이원론적인 세계관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잉카 이전부터 안테스를 특징짓던 이원론적 세계관은 잉카의 사회 구조에 있어서도 기본 원리가 되었으며(Zuidema 1983),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자 생존의 기반이었던 친족관계 역시 부모양계 혈통주의에 근거했다. 친족단위공동체인 아이유(*ayllu*)의 구성원들은 평행적 계보, 즉 부자(父子)와 모녀(母女) 관계에 근거해 공동체의 토지와 가축 등에 대한 사용권을 세습했고(Powers 2000, 518; Silverblatt 1987, 5), 이 전통은 잉카 이전부터 잉카 정복 이후까지 줄곧 유지되었다. 잉카는 중국의 음양론과 유사하게 생명의 근원과 재생산은 여성적인 힘과 남성적인 힘이 역동적으로 상호 보완함으로써 가능하다고 믿었다. 천상의 영역에 속하는 이야기파를 비롯해 남성성을 지닌 여러 신성들은 비, 천둥, 우박, 산사태 등 자연 현상을 지배하는 힘을 지닌다고 여겼던 반면, 지상의 영역에 속하는 파차마마를 비롯해 마마코차(Mama Cocha, 바다의 신), 사라마마(Saramama, 옥수수의 신) 등 다양한 여성신들은 생명, 특히 인간의 생존/재생산과 관련된 존재로 간주되었다(Asin 2001, 676-678; Guardia 2002, 66-67; Powers 2000, 513; Rostworowski 1988, 5; Silverblatt 1987, 31). 안테스에서 젠더는 이처럼 잉카 이전부터 잉카에 이르기까지 우주와 생명의 원리를 지배하는 핵심적인 원리로 작용했으며, 상호의존적이고 평행적인 젠더 관계는 혼인, 농업 활동, 직물 생산, 세습 등 토착민들의 일상생활의 다양한 측면을 구성했다(Powers 2000, 511-512). 일반 계층의 남성과 여성은 혼인 관계를 맺고 가정을 꾸린 후에야 비로소 완전한 성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고, 서로 비등한 수준의 예물을 주고받는 혼인 의례를 통해 혼인이 남녀 간 동등한 관계에 근거하고 있음을 확인했다(Silverblatt 1987, 8). 식물 재배, 직물 생산, 가축 사육, 가사 노동, 육아 등 일련의 활동들은 젠더와 나이에 따라 구분되었고,⁴ 성별에

따르는 노동 분업은 유아기부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준수되었다.

이처럼 이원론적 세계관과 이에 근거하는 젠더 상보성(complementarity) 논리는 잉카 이전부터 안데스의 사회 조직과 가치관의 주된 특징이었지만, 잉카라는 정복 세력의 등장은 그 구체적인 해석과 적용에 있어 일련의 중요한 변화들을 야기했다. 잉카는 제국을 확장하고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 전반을 정복자와 피지배자의 구도에 의거해 서열화했으며, 다양한 상징적, 제도적 장치를 통해 이를 재생산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젠더는 핵심적인 원리로 작용했으며, 남성과 여성은 각각 정복자와 피정복자로 동일시되었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제도는 아클라(*aclla*)라고 불리는 여성들의 등장이다.⁵ 아클라 여성들은 대부분 정복당한 부족에서 선발된 순결한 어린 소녀들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출신 신분, 외모, 신체적 자질 등에 따라서 상이한 목적(가장 뛰어난 여성들은 의례의 여사제가 되거나 잉카의 후처로 간택되었고, 일부는 왕실에서 사용할 직물이나 수공예품을 제작했으며, 왕의 권한에 따라 특정 남성들의 아내가 되거나, 종교의례의 제물로 바쳐지는 등)을 위해 배치되었다(Rostworowski 2007, 40-41). 잉카는 정복한 지역에 태양 신전을 세우도록 했고, 그 옆에 아클라 여성들을 수용하기 위한 특수 시설(*acllawasi* 아클라와시)을 짓게 했다(Silverblatt 1987, 91). 아클라 여성들은 아클라와시에 머물며 외부로부터 철저히 고립된 채 일체의 활동이 통제되었고, 순결을 유지해야 했으며, 규율과 종교적 의례를 학습하고, 일련의 생산 활동에 종사했다. 아클라 제도는 잉카가 지방 단위에서까지 통치 권력의 효율성과 가시성을 극대화할 수 있게 했다.⁶ 아클라 여성들은 가장 가까이에서 태양신과 잉카를 모셨고, 이런 점에서 잉카 정복자 집단과 피정복자 집단이라는 양분된 범주에서 벗어나 두 집단을

4 예를 들어, 여성은 약초나 채소나 염색원료 등을 채집했고, 해안지대에서 여성은 주로 잉카 소유의 경작지에서 코카인을 채집했던 반면에 남성은 지방권력가인 쿠라카의 경작지에서 코카인을 채집하는 방식으로 세밀하게 분업이 이루어졌다(Rostworowski 1988, 7).

5 아클라는 케추아어로 선발하다는 의미이며, 아클라 여성은 선택된 여성이라고 번역된다(Asin 2001, 16).

6 피터 고스는 아클라 제도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더 광범위한 지역에서 더 많은 인구를 대상으로 시행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고스는 페드로 피자로, 무루아, 과만포마 데 아얄라 등 식민시대 기록자들의 문헌에 근거해 “선발된” 여성들과 “선발되지 않은” 여성들 간의 구분이 상대적일 가능성이 있었다고 해석하며, 피지배 지역의 여성들 대부분이 비록 아클라와시에 머물지는 않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직물 생산과 요리법 등을 배우며 아클라로서 생활한 경험을 공유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Gose 2000, 87).

매개하는 독특한 위치에 있었다(Silverblatt 1978, 48-50; Silverblatt 1987, 101-106).

잉카 제국에서 조세 제도의 기본적인 단위는 혼인으로 맺어진 부부를 중심으로 하는 가정이었다.⁷ 이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남성과 여성의 상보적인 노동 분업을 공동체 생존의 가장 필수적이지 기본적인 요소로 설정하는 안데스의 전통에 토대를 두고 있다(Hernández 2007, 67). 하지만 잉카는 아클라 제도를 도입해 정복당한 부족 여성의 신체를 통제했고, 부역이나 전투에서 공을 세운 남성들에게 아클라 여성들 가운데 일부를 아내로 보상하여 정복자로서의 지배권을 강화했다. 잉카는 아클라 여성들이 공식적인 종교체계와 의례에서 중요한 위치(특히 태양신 숭배와 인신공양 의례와 관련해)를 차지하게 해서 아클라 제도에 상징적인 의미와 가치를 부여했고 그 안에 내재된 폭력성은 은폐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서 잉카는 제국에 기여한 이들에게 아클라 여성들을 신부로 보상함으로써 정복자와 피정복자 간의 호혜적 관계의 틀을 유지했고, 동시에 스스로를 난폭한 정복자가 아닌 관대한 지도자 또는 후견인으로 형상화했다. 그리고 이 모든 제도들은 남성과 여성이 더 이상 대등한 관계가 아닌 정복자와 피정복자로 대변되는 불평등한 권력 관계에 있다는 관념에 토대를 두고 있었다.

그렇다면 잉카와 불과 한 세기 간격으로 등장했던 스페인 정복자들의 식민 통치는 안데스 젠더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 잉카와 달리 스페인 정복자들은 정복당한 사회의 구성원들과 그 어떤 역사적, 문화적, 종교적 경험도 공유하지 않았고, 식민지 토착민들이 자신들과는 종족적으로 완전히 구별되는 이질적인 존재라고 생각했다. 즉, 잉카 제국의 통치 체제와 전략이 계급과 젠더에 따른 불평등한 분화에 토대를 두고 있었다면, 스페인 식민 세력은 여기에 인종이라는 아주 새롭고도 모호한 범주를 추가한 것이다. 새로운 체제에서 안데스 원주민들은 정복당한 집단으로서 공통된 정체성을 공유했을까? 다시 말해, 스페인의 정복은 안데스 토착민들 사이에 존재하던 젠더와 계급에 따른 분화를 약화시키고 새로운 공통된 정체성을 공유하게 했을까?

7 비록 공식적인 조세 제도의 대상은 기혼 남성이었지만 부역으로 인해 개별 가정에 초래되는 일시적인 남성 노동력 상실과 그로 인한 손실은 그 여성 배우자의 노동으로 보완될 수 있다고 전제되었다(Powers 2000, 516). 이를 고려할 때 잉카 조세 제도의 기본 단위를 기혼 남성으로 보기보다는 부부를 중심으로 하는 가정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아니면 그 반대로 스페인의 등장은 안데스 토착민들 간의 계급과 젠더에 따른 분화를 심화시켰을까? 잉카가 여성에 대한 통제를 통해 정복자로서의 권력을 강화했듯이 스페인 식민 체제 역시 여성에 대한 통제를 통해 지배권을 강화했을까? 아니면 이와 대조적으로 스페인 식민 시대에 접어들어 원주민 여성들은 기존에 갖지 못했던 기회들을 향유할 수 있게 되었을까? 이 글에서는 스페인 식민 체제에서 안데스 원주민 여성들의 삶이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앞의 질문들에 답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스페인 식민 통치로 인종이라는 관념이 생겨나면서 기존의 계급과 젠더에 따른 분화가 인종 범주와 결합되어 어떠한 새로운 질서로 이어졌는가를 논의하기 위해 이어지는 글에서는 원주민 여성들을 잉카 왕조와 지도층 가문의 여성들로 구성된 상류층 여성들과 일반 여성들 두 집단으로 나누어 비교 분석할 것이다. 또한 원주민 여성들의 삶을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하기 위해 분석 범위를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측면으로 구분하고, 문화적 측면과 관련해서는 젠더 관념과 혼인 제도를 살펴보고, 경제적 측면에서는 농촌과 도시의 경제에서 원주민 여성들의 활동과 참여를, 정치적 영역에서는 정치 체제에서 원주민 여성들이 차지한 지위와 영향력을 살펴볼 것이다.

식민시대 안데스 원주민 사회의 젠더 관념과 혼인제도

스페인의 젠더 관념은 1492년 그라나다 함락으로 일단락지은 재정복, 그리고 그 이념적 기틀이 되었던 기독교적 세계관에 토대를 두고 있었다. 남성은 재정복 전쟁의 승리를 가져온 용맹한 전사이자 영웅이었고, 신세계의 탐험가이자 정복자였으며, 정치, 경제, 종교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권력을 독점했다.⁸ 반면 여성은 선천적으로 남성보다 나약하고, 유혹에 빠지기 쉬우며, 일종의 미성년 상태인 존재로서 남성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존재로 규정됐다(Emma 2007, 200-201; Garrett 2008, 549; Powers 2000, 519; Vergara 2007, 114). 법적 논쟁이나 재산권 등의 사안에서 여성은 후견자로서 남성(미혼 여성의 경우

8 캐런 파워즈에 따르면 15-16세기 무렵 스페인의 권력은 왕의 권력, 지방 통치자의 권력, 대토지 소유주의 권력, 아내와 자녀에 대한 남성의 권력, 노예 소유주의 권력, 이렇게 다섯 단계로 구분될 수 있으며, 모두 남성이 독점했다는 특징을 지닌다(Powers 2000, 519).

아버지, 기혼 여성의 경우 남성 배우자 등)을 통하지 않고서 스스로를 대변할 수 없었고,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은 남성과 여성의 영역으로 분리되었다. 여성의 가치는 ‘정조’(honori) 관념으로 형상화되었고, 여기에는 조신함, 순종, 상냥함, 배려 등 일련의 추상적인 속성뿐만 아니라 성적 절제(미혼 여성의 경우 혼전순결, 기혼 여성에게는 혼외정사 금지 등), 사적 영역인 가정으로의 근신 등이 포함되었다(Kuznesof 1995, 161). 정조 관념은 여성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되었다. 예를 들어 기혼 여성의 불륜 행각이 드러날 경우 그녀는 자신의 명예뿐만 아니라 가족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이유로 심한 비난을 받았고, 지참금에 대한 권리를 상실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남성의 불륜은 좀처럼 문제시 되지 않았고, 처벌 또한 미미했다. 오히려 이 경우 명예를 잃게 되는 쪽은 불륜 관계를 맺은 남성이 아니라 부도덕한 행동을 저지른 남성을 배우자로 둔 여성이었다(Emma 2007, 203).

스페인의 정복과 식민 사업으로 안데스에도 스페인의 젠더 관념이 유입되기 시작했지만, ‘정조’와 같은 가치들은 초기에는 주로 스페인 출신 여성과 크리올로(*criollo*, 아메리카에서 태어난 스페인 출신) 여성, 또는 정통성(*legitimacy*)을 인정받은(주로 스페인 출신 아버지로부터 적손으로 인정받은) 메스티소(*mestizo*, 백인과 원주민 혼혈) 여성에게 선별적으로 적용되었다. 일반 원주민이나 흑인 노예 여성의 경우 생계를 영위하기 위해 남성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생산 활동에 종사해야 했고, 이 상황에서 그들에게 정조를 지키기 위해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고 가정이라는 사적 공간에 은신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식민 정부의 이익에도 반하는 일이었다(Vergara 2007, 116). 더 나아가 ‘정조’ 개념이 전제하는 지참금 제도 역시 일반 원주민이나 흑인 노예들에게는 생소한 제도에 가까웠다. 이상적인 여성상에 대한 기대가 인종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스페인의 젠더 관념은 인종과 관련 없이 안데스의 모든 여성들의 삶에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미쳤고, 혼전순결, 일부일처제, 정통성 개념, 남성후견인제도,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분리 등은 식민 시대 안데스의 사회적 규범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새로운 환경에서 원주민 여성들은 스페인에 정복되는 동시에 남성들에게 지배당하는 “이중의 위협”에 처하게 됐지만(Deeds 1997), 변화의 구체적인 방식이나 강도는 원주민 여성들의 출신 계급에 따라 매우 달랐다. 변화의 여러 측면 가운데 혼인 제도는 식민 시대 원주민 여성들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통과 의례이자,

상류층 원주민 여성(잉카 통치가문 출신, 또는 지방 권력자들의 딸)과 일반 원주민 여성이 어떻게 상이하게 이중의 식민화를 경험했는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식민시대 초반에 스페인 정복자들은 적극적으로 원주민 여성들을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 여기에는 당시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한 스페인 사람들 가운데 압도적인 다수가 남성이었다는 사실이 한 몫을 했고,⁹ 신대륙에서 여전히 내분과 소규모 국지전이 이어짐에 따라 식민 정부가 스페인 정착민들을 통제할 여력이나 제도가 부재했던 상황도 기여했다. 스페인 정착민과 원주민 여성의 결합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메스티소 인구도 급속히 증가했고, 이는 안데스를 비롯한 아메리카 식민지 전반의 인종 구성과 사회 구조에 급격한 변화로 이어졌다. 하지만 이들 관계 중 대부분은 정식 혼인 서약으로 맺어지지 않은 채 혼외관계로 끝나기 마련이었다(Hemming 1993, 174). 스페인 정착민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었던 원주민 여성들의 상당수가 첩이나 정부 등으로 전락했음에도 이들 모두가 성적인 쾌락이나 일시적인 탐닉, 또는 스페인 남성의 강압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 그들 고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스페인 정착민들에게 안데스에서의 결혼은 낭만적 사랑에 이끌린 남녀의 결합이라기보다는 부를 획득하고 인맥 형성을 통해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일종의 계약 관계에 가까웠다.

정치적, 물질적 이득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혼인 관계는 스페인의 고위층 정복자들과 잉카 가문 원주민 여성들의 결합에서 명료히 드러난다. 정복과 동시에 스페인 군사들은 잉카의 아내, 딸, 여자 형제들을 아내나 정부로 취했고, 이를 통해 토착 사회에서의 영향력을 확보하고, 동시에 아내의 상속 재산을 통해 부를 축적했다. 마찬가지로 잉카 통치자들은(또는 그 가족 구성원들) 혈연관계의 여성을 정복자들에게 일종의 선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정치적 동맹이나 경제적 특권을 보장받고자 했다. 예를 들어 아타왈파(Atahualpa)는 정복자인 프란시스코 피사로에게 자신의 이복누이이자 와이나 카팍(Huayna Capac)의 딸인 이네스 와이야스(Inés Huayllas)를 넘기며 협상을

9 한 연구에 따르면 1520년대부터 1540년대까지 누에바 에스파냐(현재의 멕시코)에 거주하던 스페인인들 가운데 94퍼센트가 남성인 것으로 보고되었다(Kuznesoft 1995, 158). 또 다른 자료에 의하면 16세기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한 스페인인들 가운데 80퍼센트 정도가 남성이었고, 이 시기 아메리카 대륙에 거주하던 스페인 여성들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이 1560년부터 1579년 사이에 도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16세기 후반에 스페인 이주민들의 전반적인 남녀 성비는 4대 1의 비율을 보였지만, 16세기 중반까지 그 비율은 10대 1에 달했을 것이다(Kuznesoft 1995, 156-157).

시도했다. 이네스는 피사로와의 사이에서 두 명의 자식을 두었고, 이후 피사로의 부하이자 추후 리마의 통치관이 될 프란시스코 데 암푸에로(Francisco de Ampuero)와 결혼했다(Quinatoa 2009, 53). 와이나 카팍의 또 다른 딸이자 당시 쿠스코에서 가장 명망 높은 잉카 상속자였던 베아트리스 와이야스(Beatriz Huayllas)는 스페인 정복자 망코 시에라(Manco Sierra)의 정부였고, 이후 스페인 사람 페드로(Pedro de Bustinza)와 결혼했으며, 그가 암살당하자 이번에는 스페인 재단사 디에고 에르난데스(Diego Hernández)와 결혼했다(Hemming 1993, 280).

널리 알려진 또 다른 사례는 망코 잉카(Manco Inca)의 후계자였지만 젊은 나이로 사망한 사이리 투팍(Sayri Tupac)의 외동딸 베아트리스 클라라 코야(Beatriz Clara Coya)이다. 그녀를 두고 벌어진 갈등과 경쟁은 유독 노골적이고도 폭력적이었다. 사이리의 미망인이자 베아트리스의 어머니였던 마리아 쿠시(María Cusi)는 당시 쿠스코 최고의 갑부였던 아리아스 말도나도(Arias Maldonado)와 친분을 쌓았고 그의 집에 머물렀다. 하지만 아리나스는 남동생 크리스토팔(Cristóbal)과 베아트리스를 혼인시키려는 계획을 세웠고, 이에 크리스토팔은 불과 여덟 살의 베아트리스를 강간해 그녀에 대한 혼인의 권리를 확보하려고 했다. 하지만 망코 잉카의 아들이었던 티투 쿠시가 그의 아들 키스페 티투(Quispe Titu)를 베아트리스와 결혼시키려 함에 따라 크리스토팔과 티투 쿠시 간의 분쟁은 국왕 펠리페의 개입으로 이어졌고, 결국 잉카 세력과 스페인 세력 간의 공식적인 아코밤바 평화 협상 체결로까지 전개되었다. 베아트리스는 키스페와의 혼인을 앞두고 수녀원에 임시 기거했지만, 스페인에 의해 잉카 최후의 보루였던 빌카밤바가 전복되자 상황은 또 다시 뒤바뀌게 된다. 기나긴 잉카의 반란에 보복이라도 하려는 듯 페루 부왕령이었던 프란시스코 톨레도(Francisco Toledo)는 베아트리스의 삼촌인 투팍 아마루(Tupac Amaru)를 체포하는데 큰 공을 세웠던 가르시아 데 로올라(García de Loyola)와 베아트리스를 결혼시켰다(Burns 1998, 22-25; Hampe 2007, 239-240; Hemming 1993, 300-302, 439-441; Powers 2002, 18).

이 사례들에서 보듯이 스페인 정복자들은 잉카 여성들과의 정략혼을 통해 잉카 세력가들의 영향력과 재산권을 확보하려 했고, 때로는 정복자로서의 권력을 과시하려 했다. 여기에는 상류층 원주민들의 이해관계도 일정 정도 개입되어 있었다. 스페인 식민 체제에서 잉카 권세가와 지도층 출신 원주민들은

스페인 귀족과 마찬가지로 조세 면제 등의 특권을 향유했고, 가문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보장받았다(Spalding 1974, 37). 이들은 스페인 세력가들과 혼인 관계를 맺어 식민 체제의 주류로 편입하기를 기대했고, 스페인 정복자들이 경영하던 엔코미엔다에서 파생하는 이득을 공유하기도 했다. 이처럼 스페인 식민 세력과 전통적인 원주민 지도층에게 결혼은 인맥을 형성하고, 정치적, 경제적 기득권을 확보하기 위한 치밀하고 신중한 협상의 대상이었으며, 그 중심에는 원주민 여성의 거래가 있었다.¹⁰

스페인 식민 통치는 일반 원주민 여성들의 혼인 제도에도 큰 변화를 초래했다. 이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식민 정부의 사회체제와 혼인 정책의 변화를 간략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식민 시대 초반 스페인 식민 정부는 효과적인 식민화를 위해 스페인 정착민과 원주민들의 결혼을 장려했다. 인종 간 결합을 통해 그들은 원주민들을 새로운 체제로 신속하게 동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피사로를 선두로 하는 정복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토착민 반란도 잠잠해질 무렵에 이르자 스페인 식민 정부는 기존의 인종 간 혼혈(miscegenation) 정책에서 분리주의 정책으로 급격히 선화하게 된다. 이에 따라 원주민들은 원주민 공화국(*república de los indios*)으로 그리고 스페인 정착민들을 비롯한 그 외의 모든 인종들은 스페인 공화국(*república de los españoles*)으로 분리되었다. 두 개의 공화국 정책은 표면적으로는 원주민 인구의 보호를 명목으로 내세웠지만 그 기저에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메스티소 인구에 대한 스페인 식민 세력의 의혹과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초기 정복사업에서 인종 간 결합은 원주민 인구의 동화를 촉진시키고, 스페인 정착민들의 성비 불균형에 대한 편리한 해법이 되었으며, 더불어 잉카 자제들과 지방 지도층을 식민 체제로 포섭하는 전략으로 기능했다. 하지만 인종 간 결합으로 메스티소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원주민이나 스페인인 그 어디에도 속하지

10 잉카 가문의 여성(또는 원주민 권세가 여성)을 매개로 하는 스페인 정복자와 원주민 지도층의 혼인 관례는 잉카 시대 아클라 제도로 거슬러 갈 수 있다. 아클라 제도는 정복당한 집단이 정복자에게 여성을 공물로 제공하는 것을 핵심으로 했다. 잉카 정복자들은 아클라로 선발된 여성들의 성과 노동력을 통제하고, 종교 의례에 이들을 동원하고, 이 중 일부를 정복 사업에 기여한 남성들에게 아내로 배분하는 과정을 통해 지방의 토착민 문화를 통제하고, 더불어 정복자로서의 권력을 극대화할 수 있었다. 비록 아클라로 선발된 여성들이 얼마나 자발적으로 자신의 운명을 선택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선발된 여성들의 가족 구성원들은 이들을 제공하는 대가로 일정한 정치적,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따라서 일부 토착민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기꺼이 자신의 딸을 아클라로 제공했다(Silverblatt 1987, 88-89).

않는, 일종의 ‘서출’(庶出)에 가까운 메스티소들은 사회 불안정이나 반란을 초래할 잠재적인 위협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은 조세의 의무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메스티소 인구의 증가는 식민 체제의 경제적 부담이자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한다(Burns 1998, 15-16; Fisher and O’Hara 2009, 3-4; Graubart 2000a, 225-226). 두 공화국 체제에서 스페인 식민 정부는 정치와 경제 체제의 정비뿐만 아니라 본토의 혼인 관례와 성 관념, 예를 들어 일부일처제, 장자 상속, 여성의 ‘정조’ 관념, ‘정통성’ 개념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신대륙에 적용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스페인 식민 정부는 스페인 정착민들에게 동일 인종과의 혼인을 장려하기 시작했고, 엔코미엔다 소유주들에게 일정한 기한 내에 스페인 여성과 결혼하지 않을 경우 엔코미엔다를 압수하겠다고 통고하기까지 했다(Burns 1998, 15). 동일 인종의 결혼을 장려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식민 정부는 정실이 낳은 적출(嫡出)에게 엔코멘테로 상속권과 같은 일련의 권리를 제공하게 하는 법안을 도입했고, 그 결과 출신의 정통성(legitimacy) 여부가 계층 이동을 결정하는 주된 요인이 되었다(Powers 2000, 526). 동일 인종 혼인 장려 정책과 정통성이라는 개념은 원주민 여성 전반에 불리하게 작용했지만, 메스티소 자녀의 정통성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그 어머니의 출신 계급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점에서 엘리트 여성에 비해 일반 원주민 여성은 자신의 메스티소 자녀를 적출로 인정받게 하는 데 더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Emma 2007, 197). 이런 점에서 식민 체제에 새롭게 도입된 동일 인종 혼인 장려 정책과 정통성 개념은 하층 원주민 여성들에게 가장 불리하게 작용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두 개의 공화국 정책으로 첫 모습을 드러낸 스페인의 분리주의 정책은 1568년 페루의 다섯 번째 부왕으로 부임한 프란시스코 톨레도가 추진한 일련의 개혁을 계기로 보다 넓은 지역에 걸쳐 집중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다. 1570년대 톨레도의 개혁은 향후 수십 년 간 식민 정부의 재정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될 포토시 은광의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 노동 제도인 미타의 도입을 골자로 했으며, 이를 위해 대대적인 원주민 재이주 정책이 시행되었다. 재이주 정책으로 원주민들은 수직성(verticality)¹¹

11 수직성이라는 개념은 안데스 고산지대에서의 농축산업 활동이 고도에 의해 결정되는 현상과 관련이 깊다. 일반적으로 개별 아이유는 채소, 옥수수, 곡물 등 다양한 종류의 농산물 생산이 가능한 저지대(약 해발 2천 미터에서 3천 미터 중후반까지)에서부터 한랭한 기후에 적합한 감자 생산과 양, 알파카, 야마 등의 목축 활동을 주로 하는 고지대(약

에 기반을 둔 전통적인 생활 터전에서 스페인식의 수평적이고 응집된 주거 공간(*reducción*)으로 내몰렸고, 상당수의 아이유 친족공동체들이 해체되거나 통합되었다. 이는 아이유 족내혼(아이유 친족 공동체 구성원간의 결혼)을 원칙으로 하던 안데스의 혼인 관례에 불가피한 변화를 초래했고, 새로운 환경에서 원주민들은 자신이 소속되지 않은 아이유의 구성원들과 혼인을 하게 되었다. 아이유 족외혼이 성행함에 따라 원주민들은 자신이 소속된 아이유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소속된 아이유의 조세 의무까지 감당해야 했고, 그 결과 이중 조세의 부담을 지게 되었다(Silverblatt 1987, 132). 게다가 스페인의 부계 상속제와 부계 거주제가 도입되며 원주민 여성들은 점차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친족공동체에서 고립되어 남편의 친족공동체로 통합되어 갔고, 이는 기존에 보장되던 모계 상속권이나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더 이상 향유할 수 없는 여성들이 증가했다는 의미였다(Powers 2000, 531).

두 개의 공화국이 표방한 분리주의 정책으로 포섭되지 않는 원주민 인구도 상당수에 달했다. 과도한 조세 부과로 인한 경제적 부담, 미타 제도의 혹독함, 재이주 정책으로 인한 아이유 공동체의 변형 등으로 많은 원주민들이 원주민 공화국으로 분류된 농촌 거주 지역을 벗어나 도시로 이주했고, 여성들은 이 가운데 상당수를 차지했다. 도시로 이주한 원주민 여성들은 시장에서 소상인으로 일하거나 가정부, 유모 등으로 일하며 식민 체제의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적응해 갔고, 고용주나 고객 등으로 보다 다양한 인종들과 접하며 그들과 일상생활을 공유하고, 새로운 문화를 습득했다. 도시에 거주하는 원주민 여성들이 보다 포괄적이고 친밀하게 새로운 문화와 인종을 접하게 되면서 타 인종과의 관계 역시 보다 빈번하고도 밀접하게 형성되었다(Hampe 2007, 241). 이 가운데 원주민 여성들과 타인종 남성들(특히 스페인 남자들) 간의 성적 관계는 일부 식민 관료들이나 기록자들의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Silverblatt 1987, 145-147). 이들 기록에서 정복당한 여성은 “언제나 이미 창녀이자 배신자”(Powers 2002, 7)로 간주되고는 했으

3천 미터 중후반 이상)에 이르는 광범위한 해발고도의 생태지대들을 포함한다. 고도에 따라 생산품목이 구분되기 때문에 거주민들은 자신이 속한 생태지대의 생산품만으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부족한 생산품을 공급받기 위해 다른 생태지대 거주민들과 호혜적인 거래를 통해 생산품을 교환했다. 안데스의 수직적인 생태구조와 호혜적인 생산/교환관계는 안데스 사회 구조의 기본적인 특징이며, 아이유의 자급자족 생산의 기본 원리였다. 안데스의 수직적 사회구조에 관해서는 존 무라의 연구를 참고하라(Murra 2002, 3장).

며, 식민 시대의 혼란과 도덕적 해이를 초래한 장본인으로 비난받았다. 같은 맥락에서 이상적인 정조 관념이나 혼전 순결 등의 덕목을 위반한 원주민 여성은 퇴폐와 위반의 상징이 되곤 했으며, 특히 “도시와 시골을 떠도는 가난한 원주민 여성은 식민사회의 모든 잘못된 것들의 상징으로 전락했다”(Graubart 2000a, 230). 식민 권력이 원주민들 삶의 모든 단면을 뒤틀고 파괴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원주민 공화국과 스페인 공화국이라는 작위적인 구분으로는 더 이상 일상에서 자행되는 권력의 폭력성을 은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원주민 여성은 가장 위태롭고도 통제 불가능한 존재로 그려졌고, 이 모든 혼란의 원인이자 증거로 지탄받았다.

하지만 두 개의 공화국이라는 체제는 원주민 여성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의미하기도 했다. 원주민 여성들은 원주민 공화국의 버팀목이자 두 모순된 세계를 매개하는 가장 적극적인 행위주체로 변해가고 있었다. 살로몬에 의하면 1600년대 안데스 도시 지역에 거주하던 원주민 여성들은 오늘날보다 더 다양한 방식으로 삶을 영위했을 것이며, 동화, 혼종, 종족성의 재규정 등 복잡한 방식을 통해 식민 체제에 적응해 갔다(Salomon 1988). 더 나아가 원주민 여성들은 상대 배우자의 인종과 관계없이 상대 배우자가 혼인의 약속을 저버리거나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경우 사법 기관에 정식으로 이의 제기를 했고, 배상 청구, 혼인 무효 소송, 이혼 소송 등의 방법을 동원해 부당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Lavalle 1999). 식민 시대 원주민 여성들의 유연하고도 강한 적응력은 특히 그들의 경제 활동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원주민 여성들의 경제 활동을 중심으로 원주민 여성들의 생존 전략을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기존의 젠더 관념과 젠더 관계에는 어떠한 변화가 생겨났으며, 더 나아가서 원주민 여성들 간에 존재하던 계급적 차이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논의할 것이다.

식민시대 안데스 원주민 여성의 경제 활동

스페인령 안데스의 경제체제에서 원주민이라는 인종 범주는 다른 인종 집단들과는 근본적으로 대비되는 독자적인 중요성을 지녔다. 본토나 식민지 출신의 스페인 혈통이나 여러 혼혈 집단들과 달리 원주민은 조세 납부와

부역의 의무를 지녔고, 이런 점에서 식민 정부의 핵심적인 경제 사업의 운용과 세제 확보를 위해서 원주민들의 역할은 절대적이었다. 원주민들은 강제 노동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흑인 노예들과 동일한 위치에 있었지만, 후자와 달리 식민 정부에 복무하는 대가로 일련의 정치적, 경제적 자율권을 보장받았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를 지녔다. 이러한 식민 시대 원주민들의 독특한 위치는 식민 정부가 도입한 두 개의 공화국 정책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원주민 집단과 원주민 이외 인종집단들을 분리해 두 범주를 별도로 관리하는 것을 요지로 하는 두 개의 공화국 정책은 원주민들이 다른 인종 범주로 흡수되는 것을 방지하고 원주민 노동력과 생산 활동이 식민 정부의 경제적 요구에 효과적으로 부응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했지만, 동시에 지나친 조세 부담이나 노동력 착취로 인해 원주민 인구가 급감하는 것을 방지하고 일정 수준의 원주민 인구가 꾸준히 유지되고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또 다른 목적으로 했다. 다시 말해 식민 체제에서 원주민들은 착취의 대상이자 동시에 보호되어야 할 존재였다.

스페인 식민 정부가 안데스 원주민에 취한 양가적인 태도는 원주민들의 전통적인 체제와 제도가 식민 체제에 반하지만 않는다면 이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간접 통치 전략에서도 반영된다. 이에 따라 원주민 공화국을 구성하게 될 원주민 공동체는 잉카 이전부터 이어지던 아이유 친족 공동체의 기본적인 골격을 그대로 계승하게 되었다. 원주민 공동체는 전통적인 지방 권력자인 카시케(스페인어로 *cacique*, 케추아어로 *kuraca*, 아이마라어로 *mallku*)를 중심으로 비교적 자율적인 의사결정권과 통치권을 허용 받았고, 일정 규모의 공동체 토지가 주어졌으며, 공동 토지 경영권과 사용권을 보장받았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가로 식민 정부에 조세를 납부하고 부역을 제공할 의무를 요구받았다. 이 같은 “호혜성의 협약”(Fisher and O’Hara 2009, 29)에 따라 원주민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던 원주민들은 독자적인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권리와 의무가 규정되었고, 따라서 그들의 대응 역시 개인적 차원이 아닌 공동체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식민 시대의 조세와 부역 제도는 이처럼 원주민들의 강제 노동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었으며, 원주민 노동력의 착취는 역설적이게도 원주민들의 전통적인 사회체제와 생산관계의 유지에 기여했다. 이처럼 식민 체제는 원주민 사회의 기본 질서가 어느 정도 지속되도록 허용했지만, 그럼에도 새로운 체제가 부과하는 경제적 요구는 원주민

사회 전반과 더 나아가 개별 원주민들의 삶과 젠더 관계에 전면적인 변화를 초래했다.

안데스 식민 체제에서 공물 납부의 의무는 초반에는 주로 광산, 작업장(*obraje* 오브라헤), 엔코미엔다 등 강제 부역 제도에서의 부역으로 부과되었고, 중반부터 노동력과 생산력의 감소가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하며 점차 노동력이 아닌 공물과 현물의 납부가 큰 비중을 차지하기 시작했다. 식민 조세 제도에서 공식적인 공물 납부자는 성인 원주민 남성이었다.¹² 이 정책은 개인이 아닌 여성과 남성의 상보적 노동 협업에 근거한 가정을 생산과 재생산의 기본 단위로 설정한데서 비롯됐고, 따라서 잉카 시대의 전통과 일맥상통하는 듯 했다. 하지만 잉카 시대와 스페인 식민 체제의 조세 제도는 본질적으로 그 성격이 판이했다. 잉카에서와 달리 스페인 식민 체제에서 조세 제도는 체제 유지와 재분배에 필요한 자원의 확보라는 사용 가치보다는 유럽 시장에서의 판매를 통한 이윤 창출이라는 교환 가치를 목적으로 했다(Silverblatt 1987, 126). 조세 제도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논리에 좌우됨에 따라 이 제도가 원주민 공동체에 미치는 폐해에 대한 고려나 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보다는 이윤의 극대화가 우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 결과 원주민 성인 남성들의 노동력만으로는 충족될 수 없는 수준의 의무가 부과되었으며,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성별이나 연령과 관계없이 사실상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의 참여가 불가피했다. 이렇게 식민 체제의 조세 제도는 원주민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에게 극도의 부담으로 다가왔지만, 그 파급력은 젠더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스페인 조세 제도의 공식적인 대상이 원주민 남성으로 규정됨에 따라 원주민 여성은 형식적으로는 공물 납부와 부역의 의무에서 면제되는 듯 했다. 하지만 개별 남성들에게 부과되는 과도한 의무는 가족 구성원이나 공동체 구성원의 협조 없이는 수행될 수 없었고, 여기에 젠더 상보성의 논리가 더해지면서 여성은 남성과는 상이한 방식으로 조세 제도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는 전형적으

12 식민 통치가 지속되면서 원주민 노동력의 고갈과 생산성 하락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자 원주민 공동체에 소속된 성인 남성(*natural* 또는 *originario*라고 불림)들만을 공식적인 조세 납부 대상으로 규정했던 제도의 실효성을 비판하는 입장들이 설득력을 얻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17세기 후반에 부임한 페루 부왕령 멜코르 데 나바라(Melchor de Navarra)는 조세 납부 대상으로 원주민 공동체 소속 여부와 관련 없이 모든 성인 원주민 남성들(원주민 이주민인 *fonisiera*와 *yanacana*를 포함)를 포함시키는 법령을 통과시키려 했지만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왕실의 허가를 받지 못했다(Mangan 2005, 166).

로 남성의 영역으로 간주되었던 포토시 미타 제도에도 해당되었다. 피사로의 정복이 시작되고 불과 10여년 만에 발견되었던 포토시 광산은 이내 페루 부왕령 뿐만 아니라 스페인령 아메리카 전역을 통틀어 가장 큰 소득원이 되었다. 포토시 광산의 규모와 경제적 중요성은 원주민 노동력에 대한 높은 수요로 이어졌고, 안정적인 원주민 노동력 확보를 위해 1570년대 톨레도의 개혁을 통해 미타 제도가 도입되게 된다. 포토시 미타 제도에 따라 알토 페루¹³ 지역의 16개 주(*provincia*)에 소속된 성인 원주민 남성(18세에서 50세)들은 7년을 주기로 매년 1년에 걸쳐 포토시 광산에서 노동력을 제공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Tandeter 1987, 102). 포토시 미타 제도는 원주민 여성에게 크게 다음의 두 가지 방식으로 영향을 미쳤다. 첫째, 상당수의 여성들은 미타요(*mitayo*, 미타 부역자)로 근무하게 될 그들의 배우자나 남성 가족 구성원들의 여정에 동반했다. 포토시에 동반자로 도착한 이들은 소규모 상인으로 시장에서 물건을 팔거나 광산고용주 등을 위한 가사노동자로 일하거나 광산에서 잡다한 일을 거들며 추가적인 소득을 창출했고, 이를 통해 남성 동반자들이 할당받은 실적을 채울 수 있도록 보조했다.¹⁴ 미타요들의 의무가 복무 시간이 아닌 채굴량에 따라 정해지게 되면서 포토시에서 이 여성들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18세기에 접어들어 광산 소유주들은 포토시 광산 생산성 하락과 미타요 감소에 대응해 미타요들에게 할당된 양의 광물을 채굴했을 때에만 정해진 4레알(*real*)의 임금을 지불하는 체제를 도입했고, 이는 미타요들의 노동 강도를 급격히 증가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미타요들은 2주간의 휴식 기간에도 광산에서 추가로 근무를 해야 했고, 그 가족들 역시 광산이나 인근 지역에서 추가적으로

13 알토 페루는 당시 행정적으로 아우디엔시아 데 차르카스에 속했다. 지역적으로는 현재의 페루 푸노 지역과 티티카카 남단에서 라파스와 포토시에 이르는 볼리비아 일대에 해당한다.

14 18세기 후반 포토시에 거주하는 기혼 인구는 총 10,634명이었고, 이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5,315명이 여성으로 집계되었다. 이 같은 성별구성은 ‘미혼 인구’(총 5,102명 가운데 여성인구 2,714명)와 ‘강제 노동 인구와 그 가족들’(총 3,902명 가운데 여성 1,933명)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Tandeter 1987, 109). 이는 포토시로의 이주에서 여성들의 동반 이주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했음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해 비앙카 프레모는 흥미로운 사실을 지적한다. 미타요들은 부역에 나서기에 앞서 1개월에서 2개월까지 걸릴 수 있는 장기간의 여행(소속 공동체에서 포토시를 오고 가는 여정)과 1여 년 간의 포토시 체류에 대비해 물품이나 경비를 마련해야 했으며, 이는 개인적으로 비축한 물품이나 소속된 공동체의 도움으로 충당되었다. 프레모에 따르면 추쿠이토와 같은 전형적인 미타 공동체 출신 미타요들은 일련의 물품 이외에도 “남성을 보조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여성”을 공급해 줄 것을 공동체에 요구하기도 했다(Premo 2000, 77).

노동해야 했다(Tandeter 1987, 107-109). 둘째, 17세기 중반부터 미타요들의 인구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상당수의 원주민 공동체들이 할당된 미타요의 수를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부족한 미타요 노동력을 현금으로 보상하는 인디오 데 플라타(*indio de plata*, 직역하면 현금 원주민) 제도가 성행하게 되었다. 인디오 데 플라타 제도는 원주민 여성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으로 다가왔다. 더 많은 원주민 남성들이 미타요로서의 의무를 피하기 위해 공동체를 이탈해 포라스테로로 전환함에 따라 남아있던 원주민 여성들은 공동체를 이탈한 남성 가족 구성원들을 대신해(설령 이들이 미타요로 근무하던 중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관계없이)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Premo 2000, 82-84).

공동체에 소속된 원주민 여성들이 이처럼 적극적이고 포괄적으로 미타 부여 의무에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주민 남성만을 조세 제도의 형식적인 대상으로 규정하는 정책으로 인해 원주민 여성들의 역할은 쉽게 간과되었다. 게다가 상당수의 원주민 남성들이 미타 부여를 회피하기 위해 공동체를 떠나거나 미타 부여 후에 공동체로 복귀하기 않은 채 포라스테로로 전환함에 따라 안데스 지역, 특히 미타로 인한 피해가 가장 컸던 알토 페루 지역의 공동체들에서는 원주민 여성이 남아있는 주민의 대다수를 차지하게 되는 심각한 성비 불균형 현상이 나타났다(Premo 2000, 71-74; Powers 2000, 532).¹⁵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낮았던 원주민 여성은 원주민 공동체에 잔류하는 가장 가시적인 인구 집단으로 주목받기 시작했고, 이는 공식적으로 남성의 기여만을 인정하던 조세 정책과 맞물려 식민 정부로 하여금 원주민 여성들이 아직 충분히 활용되지 않은 상비 노동력으로 인식되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식민 정부가 원주민 여성 노동력의 잠재적인 가치에 주목함에 따라 식민 정부는 그들이 실질적으로 조세 제도에 기여하게 할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고, 구체적으로 이는 원주민 여성을 직물제조자로 고착시키는 작업을 통해 실현되었다. 사실상 여성들의 직물 생산은 잉카 이전으로 거슬러가는 안데스의 매우 중요하고도 오래된

15 소속된 원주민 공동체를 떠난 이주 원주민들의 인구는 식민 통치가 진행됨에 따라 더욱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다. 예를 들어 1645년 알토 페루 지역의 총 7만 1천 명의 원주민 남성 가운데 14퍼센트가 야나코나(*yanacona*, 어떤 원주민 공동체에도 소속된 적이 없었던 이주 원주민)로 그리고 22퍼센트가 포라스테로(*forastero*, 원주민 공동체에서 이탈한 이주 원주민)로 분류되었다. 이 집단들의 비중은 계속 증가했고, 1683년 야나코나와 포라스테로는 전체 원주민 남성들 가운데 46퍼센트를 차지했던 것으로 집계되었다(Zulawski 1990, 100).

전통이었다. 잉카 이전부터 가족과 공동체를 위해 실을 짓고 옷을 뜨는 일은 여성의 중요한 활동이었고(Silverblatt 1987, 9), 잉카 제국에서 직물 생산이 아클라 여성들의 주요 기능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으면서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인 의미까지 부여받게 되었다(Gose 2000). 그렇지만 식민 시대 원주민 여성의 직물 생산에 대한 요구는 이전과는 매우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스페인 정복 이전 안데스 여성들의 직물 생산은 일반적으로 가정이나 공동체에서의 사용을 위해 이루어졌으며, 젠더에 따른 노동 분업 역시 상황에 따라 비교적 유동적이었다(Graubart 2000b, 544). 이와는 대조적으로 스페인 식민 체제에서 여성의 직물 생산은 가정이나 공동체의 필요에 따르기보다는 공물 납부의 의무를 충당하기 위해서 수행되거나, 심지어 식민 체제의 지방 행정관(*corregidor* 코레히도르), 사제, 카시케, 엔코미엔다 소유주 등 권력자들의 사적인 재산 축적을 위해 강압적으로 이루어졌다. 여성들이 노동력에 대한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한 채 불법적으로 직물 생산에 동원되는 사례들이 종종 보고되었고, 일부 관리나 사제들은 이렇게 생산한 직물들을 원주민 공동체에 몇 배의 가격으로 되팔아 이윤을 남기기도 했다(Graubart 2000b, 551-554). 식민 체제에서 원주민 여성들의 직물 생산은 과도한 조세 부과로 인해 남성과 여성의 상호보완적인 분업과 협업에 기초한 생산관계가 파괴된 상황에서 젠더 상보성 논리가 어떻게 여성에 대한 이중의 착취로 이어지게 되었는가를 보여준다.

농촌의 원주민 여성들은 공동체와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이처럼 다양한 경제 활동에 종사했다. 식민 경제에서 원주민 여성들의 활발한 참여는 비단 농촌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었으며, 도시에서도 원주민 여성들은 매우 중요한 경제 활동 주체였다. 도시에 거주하는 원주민 여성들은 농촌 거주 여성들과는 달리 원주민 공화국과 스페인 공화국이라는 두 범주 모두를 생존의 터전으로 삼았다. 도시 거주 원주민 여성들은 원주민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동체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일련의 의무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다는 이점을 누렸지만, 공동체를 근거로 제공되었던 일종의 사회안전망(공동 토지 사용권과 친족 사이의 상호부조 등)에서 소외되어 독자적으로 생존해야 했다는 점에서 늘 불안정하고 위태로운 상황에 있었다. 이방인으로서 스페인 공화국의 시장 경제에 발 딛고 살아남아야 했던 도시 원주민 여성들의 삶은 원주민 공화국에 속해 있던 여성들의 경우에 비해 보다 다양한 요소들(예컨대 출신

계층, 이주 양태, 인종 간 또는 인종 내 연결망, 혼인 관계, 직종 등)의 영향력에 노출되었고, 이 요인들이 복잡하게 상호작용함에 따라 동일한 조건에서 시작했던 여성들일지라도 궁극적인 성취도 면에서 큰 차이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러한 다변성에도 불구하고 스페인 식민 체제에 대응하는 데 있어 잉카 혈통이나 지방 권력자 가문 출신의 상류층 원주민 여성들은 전반적으로 일반 원주민 여성들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 잉카 제국에서와는 달리 스페인 식민 체제의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사유 재산권의 개념을 도입했고, 스페인의 토지 소유주(*hidalgo* 이달고)에 버금가는 특권을 보장받았던 상류층 원주민들은 기존에 공유재로 분류되었던 토지와 자원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Asin 2001, 685-686; Silverblatt 1987, 111-115). 상류층 원주민 여성들은 출신 혈통에 근거해 새로운 자원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고, 안데스의 양계 상속 전통에 따라 일정 비율의 재산을 상속받았다. 이런 점에서 스페인의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상류층 원주민 여성들이 새로운 경제적 이점을 누릴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로서 남성의 후견이 필요한 존재라고 간주하는 스페인의 젠더 관념은 일반 여성들뿐만 아니라 상류층 원주민 여성들의 경제 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공적 영역에서 여성의 직접적인 참여가 제한됨에 따라 원주민 여성들은 상속받은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배우자 남성의 개입에 상당 부분 의존했고, 잦은 정복 전쟁 등으로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미망인으로 남기보다는 재혼으로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경향이 있었다(Vergara 2007, 118).¹⁶ 일부 상류층 원주민 여성에게는 스페인 출신이나 크리올로 여성에게 적용되던 정조 관념이 요구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상당수의 여성들은 사적인 공간인 가정에 머물며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제한되어 있기 보다는 엔코미엔다나 아시엔다 등의 재산을 경영하고 관리하는 일에 참여하고, 일부는 이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으로 상업에 투자하거나 이자를 받고 대부해주는 방식으로 부가 이득을 취했다

16 식민 시대 미망인 여성들은 남성 배우자를 통한 사회적 연결망을 상실했다는 의미에서 기혼 여성들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있었지만, 반면 후견인으로서의 남성의 중재 없이도 비교적 독립적이고 자유롭게 공적 영역에 참여할 권리가 주어졌다는 점에서 이점을 향유할 가능성을 지니기도 했다. 부모나 남편으로부터 재산을 상속한 상류층 여성들은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대체로 새로운 혼인 관계를 맺어 기존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지켜나가거나 추가적인 부를 축적해갔지만, 미망인으로서 남성 배우자의 개입 없이 독자적으로 연결망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권리를 확보한 여성들도 적지 않았다 (Presta 2000, 238-243; Zulawski 1990, 102-103).

(Barragán 2011, 127; Vergara 2007, 117-120).¹⁷

도시에서 일반 원주민 여성들의 경제 활동은 특히 활발했으며, 포토시나 라파스와 같이 원주민 노동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도시의 시장 경제에서 일반 원주민 여성들의 역할은 원주민 남성들이나 그 외 인종의 남녀 상인들에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았다. 도시 시장 경제에서 원주민 여성들이 부각되게 된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차지했던 독특한 위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도시에 거주하는 원주민 여성들 대부분은 농촌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가족의 생존을 위해 경제 활동을 수행했다. 하지만 농촌의 경우, 개별 원주민 가정의 생존은 아이유 친족 공동체의 생존으로부터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었으며, 따라서 각 개인과 가정의 경제 활동은 공동체의 필요에 의해 규정되었다. 반면 도시의 일반 원주민 여성들의 경제 활동에 있어 아이유 친족 공동체의 역할은 훨씬 유동적이고 제한적이었으며, 공동체의 필요 보다는 개인과 가정의 필요에 의해 구체적인 활동이 결정되었다. 도시에 정착한 원주민 여성들은 아이유의 공동 토지 경작권을 보장받지 못했고, 일종의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했던 친족 간 협업 관계에서 배제되었다는 점에서 취약한 위치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원주민이라는 정체성과 이를 근거로 형성된 연결망은 그들의 생존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자 때로는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도시의 일반 원주민 여성들은 출신 가정의 경제적, 사회적 위치, 세습 재산, 혼인 여부, 종족 정체성에 따라 복잡하게 세분화되었고, 경제적 성취도에 있어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이와 관련해 식민 시대 안데스에서 원주민 여성 상인들을 분류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용어들은 이들이 동일한 인종 집단에 속해 있었다더라도 내부적으로 어떻게 분화되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제인 맨간(2009)의 연구에 따르면, 포토시 은광이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던 16세기 후반부터 17세기 초반까지 포토시의 원주민 여성들은 시장 경제를 이끌어가는

17 식민 시대 여성들의 경제 활동과 관련해 엘리노르 버킷은 상류층 여성들은 그들의 남성 배우자들에 의해 경제적인 필요가 대부분 충족될 수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보다는 자발적이고 개인적인 선택에 의해 가정을 벗어나 경제 활동에 참여했던 반면, 일반 여성들에게 시장 경제에의 참여는 개인의 선택이라기보다는 생계를 이어가기 위한 절대적인 필요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버킷에 의하면 식민 시대 여성이 계층에 따라 상이한 이유로 경제활동에 참여했기 때문에 17세기 페루의 경제가 침체에 이르러 경제 활동에 제약이 가해지고 보상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상류층 여성들은 경제 활동을 중단하거나 그 규모를 축소시킨 반면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일반 여성들은 동일한 수준의 활동을 이어갔다(Burkett 1977).

주역이었으며, 이들은 다음의 세 집단으로 구별되었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집단은 인디아 가테라(*india gatera*)라고 불렸으며(이 가운데 상류층 원주민 여성은 인디아 파야¹⁸로 구별되었다), 이들은 주로 친족관계를 근거로 원주민 공동체에서 생산한 농작물과 직물 등을 공급받아 시장에서 판매하는 일에 종사했다. 원주민 공동체에서 직접 물품을 공급받아 시장에 판매하는 행위는 원주민 여성 상인들이 당시 스페인 식민 정부가 판매상들에게 부과하는 세금(*alcabala* 알카발라)에서 면제되는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했으며, 이는 그들이 시장 내 다른 인종의 상인들보다 유리한 입지를 점할 수 있게 했다(Mangan 2009, 67-69).¹⁸ 두 번째 집단은 레가톤(*regatón*)이라고 불리는 원주민 여성 상인들이었는데, 이들은 도시 외곽의 시장에서 물건을 구매해 보다 도심의 시장에서 높은 가격에 되파는 일종의 소매상들이었다. 레가톤은 포토시의 은광 생산량이 감소하기 시작하고 더불어 시장에 스페인 출신 상인들의 수가 급증함에 따라 원주민 상인들의 입지가 약화되는 상황에서 등장했으며, 토착 상품의 유통과 가격을 통제하려 했던 식민 관료들과 가장 적대적인 위치에 있었다(Mangan 2009, 69-71). 세 번째 집단은 메스티사 엔 아비토 데 인디아(*mestiza en habito de india*)라고 불렸으며, 원주민의 생활 습관을 지닌 메스티소 여성들로 직역된다. 이들은 인종적으로는 스페인인 출신과 원주민 출신의 결합에 의한 메스티소였지만, 원주민 의상을 착용하고, 원주민 언어를 사용하며, 원주민 거주 지역에서 생활하는 여성 상인들이었다. 이들이 원주민의 생활 습관을 고수하는 가장 표면적인 이유는 원주민으로 행세함으로써 알카발라 면세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출생과 동시에 대부분 스페인인 출신이었던 아버지들보다는 원주민 출신 어머니들에 의해 양육되었고, 이에 의해 모계의 원주민 문화와 관습을 영여기부터 습득했다.¹⁹ 따라서 이 여성들에게 원주민 생활 습관을 고수한다는 것은

18 스페인 식민 정부는 원주민들이 조세 납부를 위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원주민 토착 상품에 대한 판매세를 면제하는 정책을 폈으며, 면세 대상 토착 상품에는 지역에서 생산된 의류나 직물, 코카잎, 추노(말린 감자), 차르키(육포), 옥수수 등이 포함되었다(Mangan 2005, 139).

19 캐런 파워즈에 따르면 안데스 북부 농촌 지역에서 메스티소 남자 아이들의 경우는 상당수가 스페인출신의 아버지에 의해 양육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성인이 되면 조세 의무를 피하기 위해 원주민 공동체를 떠난 반면에 메스티소 여자 아이들의 경우는 대부분 원주민 출신 어머니에 의해 양육된 후 성인이 되어도 원주민 공동체에 소속되어 생활했다(Powers 2002, 21).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위한 수단을 넘어서 자신들의 종족 정체성을 표현하는 행위로서의 의미를 지녔다(Mangan 2009, 71-75).²⁰

맨간의 연구는 원주민 여성 상인들이 세부적으로 다양하게 분화되었더라도 원주민이라는 정체성과 이를 토대로 형성한 원주민 사회와의 연결망을 자산으로 삼아 도시에서의 생존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녔음을 보여준다. 또 다른 연구에서 맨간은 이러한 여성들의 생존 전략과 성취도에 있어 혼인 여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으며, 기혼 여성과 미망인 그리고 독신 여성들은 각자가 활용할 수 있는 독자적인 연결망(예를 들어 남성을 매개로 한 연결망이 필요할 경우, 기혼 여성의 경우는 주로 남성 배우자와의 협력을 통해, 미망인의 경우는 전 남편의 사회적, 경제적 자원을 통해, 그리고 독신 여성들의 경우는 확대 가족의 남성 구성원이나 종교 단체와의 연대를 토대로 형성)을 통해 시장에서 입지를 확보했다는 해석을 제시한다(2005, 134-160). 스페인 식민 정부가 내세운 원주민 공화국과 스페인 공화국이라는 도식적인 범주를 넘어서 두 세계 사이에서 살아갔던 원주민 여성 상인들의 생존력과 역동성은 식민 시대 전반에 걸쳐 포토시뿐만 아니라 라플라타(당시 차르카로 불리던 지역), 오루로, 라파스(Zulawski 1990), 키토(de Moreno 2001; Salomon 1988), 과야킬(Townsend 1997), 리마와 쿠스코(Burns 1993, 94; Vergara 2007, 134-139), 아레키파(Burkett 1978) 등 안데스 전역에서 확인된다.

식민 시대 안데스에서 경제 활동은 잉카 이전부터 존재하던 상보적인 젠더 관계가 가장 극명하고도 일관되게 적용되던 영역이었다. 원주민 여성들은 공동체와 가족의 생존을 위해 자급자족 농업뿐만 아니라 직물 생산, 상업, 광산에서의 잡다한 노동, 가정부 등 다양한 경제 활동에 종사했으며, 원주민이라는 종족적 정체성을 주어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활용했다. 이들에게 식민

20 보차르트 데 모레노에 의하면 유사한 범주가 에콰도르에서도 사용되었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17세기 중반부터 에콰도르의 키토에서 레카토나(*recatona*)라고 불리는 원주민 여성 소매상들과 가테라(*gatera*)라고 불리는 메스티소 여성 소매상들의 활동이 증가하기 시작했고, 18세기 후반에는 이 여성 상인들이 남성 상인들을 누르고 식료 잡화점의 경영과 소유를 지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de Moreno 2001, 169-170). 맨간의 연구와 관련해 모레노의 사례는 식민 시대 안데스의 도시 시장 경제에서 원주민 여성 상인들의 영향력이 비단 포토시라는 특정한 도시나 식민 시대 초반이라는 특정한 시대에 한정되지 않았으며, 이와 더불어 비록 정확한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더라도 종족 정체성에 따라 여성 상인들을 구별하여 부르는 관행이 포토시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들에게서도 나타났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체제가 부과하는 과도한 조세의 의무는 원주민이자 여성이라는 이유로 때로는 이중의 억압으로 다가오기도 했지만, 반대로 원주민이자 여성이라는 사실이 이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으로 다가왔던 사례들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비단 상류층 출신의 원주민 여성들에게만 한정된 것은 아니었다. 그렇다면 원주민 여성들의 정치적 참여에 있어서도 이러한 젠더 상보성이 적용되었을까? 식민 체제가 일부 원주민 여성들의 정치 활동에 있어서도 착취와 박탈이 아닌 새로운 기회로 다가올 수 있었을까? 이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이어지는 글에서는 식민 시대 안데스의 정치 체제에서 원주민 여성들이 차지했던 지위와 역할을 살펴보겠다.

식민시대 안데스 원주민 여성들의 정치 참여와 역할

스페인의 정복은 안데스의 정치 지형 전반에 극단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잉카 통치자들은 국왕을 중심으로 하는 스페인 정복 세력에 정치권력 일체를 박탈당했고, 출신 배경과 무관하게 모든 원주민들은 식민 체제의 정치, 행정, 사법 기구에서 전면 배제되었다. 권력 구조는 정복자의 이익과 식민의 가치에 따라 재편되었고, 이는 유럽 중심적인 동시에 본질적으로 남성 중심적인 속성을 지녔다. 남성 중심적인 권력 구조는 여성의 우둔함(*imbecilidad*)이라는 관념으로 법제화되었다(de Moreno 2001, 165-166). 가부장적인 젠더 관념이 식민 체제의 모든 여성들을 공적 영역에서 배제하는 기제로 작용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개별 여성의 계급이나 인종에 따라 상이한 방식으로 전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서 엠마 마나렐리(Emma 2007, 204-210)는 스페인 출신 여성들이나 크리오요 및 정통성을 인정받은 일부 메스티소 여성들의 경우, 가부장적인 젠더 관념과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통제가 다음의 세 가지 방식으로 작동했다고 설명한다. 첫째는 물리적인 격리로 여성들은 공적인 장소의 출입에 제재를 받거나 불가피하게 공적인 모임에 참여할 때는 얼굴에 가리개를 쓸 것을 권장받기도 했다. 품행이 단정치 못하거나 문란한 여성을 처벌하고 훈육하기 위한 특별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1670년 위험 요소가 있는 백인 여성들을 수용하여 훈육하기 위한 피난소(*casa de recogidas*)가 설립되었다

(Emma 2007, 205-206).²¹ 둘째는 지참금 제도로 여성이 그녀의 아버지가 지불하는 지참금을 통해 혼인 전까지 그녀의 보호자였던 존재로부터 명예와 가치를 보증 받는다는 사회적 의미를 지녔다. 지참금은 혼인 이후 여성의 성적 행동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으며(기혼 여성들이 지참금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는 가장 큰 요인은 불륜으로 발각된 경우였다), 잦은 전투로 남성 사망률이 높던 시기에 사별 후에도 여성의 경제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다. 식민 시대의 주요 종교 기관들은 지참금을 지불할 수 없는 가난한 가정의 미혼 백인 여성들을 위해 재원을 확보해 일정 금액을 보조하기도 했으며, 이는 백인 여성들의 명예와 정조가 위협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인 안전장치로 기능했다(Emma 2007, 208-209). 세 번째로 정조 관념은 백인 여성들이 기타 인종 여성들과 비교해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우월함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피의 순수성 개념과 맞물려 정조 관념은 특정하게 순혈 백인 여성들에게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되었고, 이는 식민 시대의 인종에 따른 계서화라는 보다 광범위한 맥락에서 젠더 관념이 해석되고 적용되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²²

21 피난소(*casa de recogidas* 또는 *casa de recogimiento*)는 정부 관리나 지주들의 기부금이나 현금 등으로 운영되었으며, 주로 남편에게 버림받거나 불명예스러운 가정생활에서 벗어나 참회하려는 여성들과 고아들을 수용했다. 1553년 리마에서 처음 설립된 산 후안 데 라 페니텐시아(San Juan de la Penitencia)를 비롯해 초기 기관들은 주로 메스티소 고아 여성들이나 가난한 집안 출신 여자들을 수용했었다. 하지만 점차 스페인 출신 여성들의 비중이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가난한 집안이나 고아 출신 백인 여성을 수용하는 기관들과 메스티소 여성들을 수용하기 위한 시설들이 분리되어 설치되기 시작했다. 이 기관들에 수용된 여성들은 일상생활의 모든 측면이 철저히 통제되고 관리되었으며, 사회적 계급이나 인종에 따라서 엄격하게 구별되고 격리되어 생활했다(Hampe 2007, 246-248).

22 지참금 제도와 정조 개념을 통한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통제와 관리는 수녀원(*comento*) 제도를 통해서도 강화되고 재생산되었다. 스페인령 안데스에서 수녀원은 여성(주로 백인 여성들이나 메스티소 여성들과 소수의 상류층 원주민 여성들이 남성 권력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 경제적, 정치적, 종교적 상징성과 영향력을 보유할 수 있었던 거의 유일한 기관이었다. 수녀원은 식민 시대 전반에 걸쳐 안데스 전역에서 설치되고 운영되었지만, 특히 리마와 쿠스코에 대규모 시설들이 밀집되어 있었다. 피난소와 달리 수녀원에 입단하는 여성들은 일부 백인 여성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정해진 한도 이상의 지참금을 지불해야 했으며, 백인이라는 인종적 특권을 행사할 수 없는 원주민 여성들은 정해진 금액보다도 훨씬 많은 지참금을 지불해야 했다. 입소한 여성들이 지불하는 지참금이 수녀원의 주된 소득원이었고, 이를 초기 자본으로 삼아 이자를 받고 대부해주는 사업을 통해 상당수의 수녀원들이 막대한 이윤과 사회적 영향력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녀원에서 여성들은 인종에 따라 철저히 계서화되었고, 원주민 여성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정식 수녀(*monja de velo negro*)로 입문할 수 없었으며, 평생 입문생이나 견습생(*monja de velo blanco*)의 위치에 머물러야 했다. 수녀원에 소속된 여성들이 개별적으로 사회에

그렇다면 식민 시대 젠더 관념은 원주민 여성의 정치적 영향력과 참여에 어떠한 방식으로 작용했을까? 앞서 언급했듯이 식민 체제로의 전환은 공식적인 권력 구조에서 원주민들이 배제되는 것을 의미했으며, 이런 점에서 원주민 여성의 정치적 지위를 비단 젠더 관계나 관념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럼에도 원주민 여성들이 원주민이라는 이유에 덧붙여 여성이라는 이유로 인해 이중의 통제와 위협에 노출되었을 것이라는 해석(Deeds 1997; Powers 2000, 521-522; Silverblatt 1987, 148-158)에는 크게 이견이 존재하지 않는 듯하다. 하지만 카시케 직위의 양계 상속 관행을 통한 일부 원주민 여성들의 참여는 이들이(식민 체제 여성으로는 유일하게) 가정이라는 사적 공간을 벗어나 공적 영역에서 지도력과 권한을 행사하는 통로로 기능했으며, 이는 안데스 원주민 여성들이 식민 시대의 정치, 권력 구조에서 다소 독특한 입지를 차지할 수 있게 했다. 잉카 이전부터 아이유 친족 공동체를 대변하는 지방 권력층이었던 카시케는 식민 시대의 포괄적인 권력 구조 재편도 불구하고 꾸준히 계승되어온 소수의 토착 관직 중 하나였다. 식민 시대에 접어들어 전통적인 지방 권력자였던 카시케라는 직위와 기능은 식민 통치의 논리 하에 새롭게 해석되고 일종의 권한 강화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결정적인 계기는 1570년대 톨레도의 정치 개혁이었다. 톨레도가 주도한 야심찬 개혁에서 핵심 사업은 당시 다양한 생태계에 분산되어 있던 약 1백 5십만 명에 이르던 원주민들이 6백여 개의 수평적인 레두시온(*reducciones*)에 집중적으로 거주하도록 재이주시키는 것이었으며, 이는 원주민 노동력과 생산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를 통해 안정적인 미타 노동력을 확보하고, 세금 징수를 체계화하며, 토착민에 대한 지방 교구의 영향력과 통치권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Klein 1992, 39; Saignes 1999, 63). 톨레도의 개혁은 원주민 사회가 스페인 본토의 행정단위를 모방한 카빌도(*cabildo*, 도시 협의회) 체제에 따라 재구성되게 했으며, 코레히도르(*corregidor*, 지방 행정관)와 같은 식민 관리를 매개로 중앙 정부가 지속적으로 지방의 토착 사회에 개입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원주민 사회의 전통적인

직접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거나 정치적 권한을 행사하지는 않았지만, 수녀원이라는 기관은 대부 사업을 통한 이윤 창출과 권세가들과의 연결망 형성을 통해 사회적 중요성을 확보했고, 고위층 수녀들과 권세가와의 유착관계를 통해 식민 체제의 권력 구조를 재생산하고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또한 소속된 여성들 가운데 일부는 수녀원에 남는 대신 혼인을 선택했고, 이를 통해 수녀원에서 생활하며 습득했던 가치 체계를 사회에 이식하는 기능을 수행했다. 스페인령 안데스의 수녀원 제도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캐서린 번즈의 연구(Burns 1997; 1998)를 참조하라.

권력 구조와 통치 체제에 불가피한 변화를 초래했다. 하지만 툴레도의 개혁으로 전통적인 토착 사회의 권력 구조가 해체되고 원주민이 식민 체제에 완전히 흡수될 경우, 과연 식민 세력은 원주민 사회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통제와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우려와 비판이 생겨나기 시작했다.²³ 같은 맥락에서 카시케를 대체하여 토착민들의 합의와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식민 관리직을 만든다는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지, 만일 실패할 경우 위험 비용이 얼마나 될 것이며 이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우려는 식민 세력으로 하여금 카시케가 전통적인 형태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신 이들의 권한이 궁극적으로 식민 체제의 이익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행사되도록 통제하고 감시하는데 주안점을 두게 했으며, 이는 식민 체제에서 카시케의 권한이 역설적으로 강화되게 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또한 카시케의 전통적인 권력 상속에 따른 정당성 확보 보장이라는 근거로 비록 스페인의 가부장적 권력 개념을 위반하는 일이었지만 권력의 양계 상속 원칙²⁴에 따른 원주민 여성의 카시케 직위 계승 역시 승인될 수 있었다.

원주민 여성의 카시케 직위 계승은 젠더 상보적인 잉카의 권력 구조가 식민 체제에서도 공식적으로 허용되고 실천된 주된 제도였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지닌다.²⁵ 그렇지만 식민 시대 원주민 여성의 카시케 직위 계승과 권한

23 예컨대 당시 법률가였던 후안 폴로 데 온데카르도는 툴레도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원주민 공동체의 전통적인 지도자들이 사라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우리가 모든 원주민들을 한 명 한 명 관리하고 세금을 징수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카시케의 지배나 영향을 받지 않게 되고 그들의 말을 따르지 않고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 방치된다면, 우리가 그들이 기독교인들이 도착하기 이전부터 살아왔던 방식 그대로 그들을 질서 정연하게 한 데 묶고 있는 구속으로부터 그들을 해방시키게 된다면, 만일 누군가 이런 일을 단 일 년이라도 감히 하려 든다면, 그때야 우리는 이런 시도가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Saignes 1999, 65에서 재인용).

24 양계 상속에 의한 카시케의 직위 계승이라는 원리는 잉카 제국의 중요한 관습이었다. 잉카 제국에서 카시케의 자녀는 쿠스코에 설치된 상류층을 위한 학교에서 지도자 수업을 받은 다음 잉카 엘리트의 승인을 거쳐 부모로부터 권한을 이양 받았다. 여성의 카시케 직위 상속은 잉카와 코야(Coya, 잉카의 부인이자 여왕)의 젠더 상보적인 권력 분할이 지방의 단위에서 실천되는 중요한 매개였으며, 따라서 이원론적이고 젠더 평행적인 잉카의 권력 구조의 주된 측면을 구성했다(Silverblatt 1987, 62-66).

25 카시케의 양계 상속 관행과 관련해 그라우바트는 여성이 부모의 카시케 직위를 물려받는 관행이 정복 이전 안데스에서 일반적이지는 않았으며, 오히려 스페인의 장자 상속 제도와 상류층 원주민들의 권력 유지에 대한 의지가 맞물려 식민 시대에 새롭게 재정의되고 강화된 제도라고 주장한다(Graubart 2007). 가렛은 잉카 제국에서 여성이 카시케 직위를

행사의 구체적인 양상은 잉카 시대와 중요한 차별성을 지녔다. 가장 큰 차이점은 비록 양계 상속의 원리에 따라 원칙적으로 여성도 카시케라는 직위를 보장받았지만, 가부장적인 사회 관념으로 인해 상당수의 여성들이 실제 직무 수행에 있어서 남편, 아들, 손자, 남자 형제 등 남성 가족 구성원을 대리인으로 세워 권한을 행사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데이비드 가렛의 자료에 의하면 1750년대부터 1800년대까지 쿠스코의 30여 개의 공동체를 가운데 약 17개 공동체에서 통치하던 32명의 여성 카시케(*cacica*)들 가운데, 5명은 남성을 통하지 않고 직접 직무를 수행했고, 21명은 남편을 대리인으로 했으며(이 가운데 2명은 남편과 아들이 순차적으로, 2명은 남편을 대리인으로 한 다음 일정 기간은 스스로, 1명은 남편과 손자가 순차적으로 권한 행사), 6명은 아들이나 손자를 대리인으로 세웠다(Garrett 2008, 554-555). 상대적으로 카시케에 대한 자료가 희박한 쿠스코 남부와 티티카카 일대에서는 약 16명의 여성 카시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여성 스스로 직무를 수행한 사례는 적어도 1명 이상일 것으로 보이며, 대부분 남편을 대리로 하거나 남편과 공동으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Garrett 2008, 557-558). 이 자료를 토대로 가렛은 여성 카시케들은 대부분 남성 가족 구성원을 대리인으로 하여 권한을 부여받았던 것으로 보이며, 쿠스코 남부와 라파스 일대의 아이마라 사회에 비해 잉카 제국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강했던 쿠스코 일대에서 여성 카시케라는 관행이 보다 성행했을 것이라는 해석을 제시한다.

이러한 가렛의 견해는 식민 시대 원주민 여성의 카시케 직위 계승이 단순한 전통적인 권력 구조의 보전이나 젠더 상보적인 권력 개념에 대한 토착민들의 합의의 반영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식민 시대 엘리트 원주민들과 크리오요 계층의 치열한 권력 다툼의 주된 수단으로 활용되었고, 마찬가지로 이들의 정치 투쟁의 결과로 유지되었던 측면도 있었을 것이라는 해석으로 이어진다.

상속해 권한을 행사한 사례가 여러 지역에서 기록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라우바르트의 주장을 전면 수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내보이지만, 그럼에도 잉카 시대의 카시케 직위 계승은 비단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에 근거해 계승되기 보다는 보다 광범위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계승되었던 반면에, 식민 시대에는 스페인의 장자 상속 제도가 결합이 되어 카시케 세습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제한되게 되었고, 그 결과 여성들이 카시케 직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데 보다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었다고 해석하며, 이런 점에서 그라우바르트와 동일한 입장에 선다(Garrett 2008, 559). 그라우바르트의 해석은 여성의 카시케 직위 계승을 잉카 시대의 독특한 특징으로 보고, 식민 시대의 가부장적인 권력 구조로 인해 여성 카시케의 권한과 영향력이 축소되었다고 해석하는 실버블래트의 입장과 대척점에 있다(Silverblatt 1987).

카시케는 자신이 대변하는 원주민 공동체에 할당된 미타요 등의 부역 노동력을 공급하고, 조세 납부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 감독하며, 이단으로 간주된 토착 종교 의례를 금지하는 등의 책임을 졌다. 그리고 그 대가로 원주민에게 부과되는 조세의 의무나 일련의 정치적, 경제적 제약에서 면제되었으며, 세습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나 공동 자원에 대한 특권 등을 보장받았다. 식민 체제의 조세 납부 요구가 과도해짐에 따라 할당된 노동력과 세금을 공급하는 최종적인 책임자로서 일부 공동체의 카시케들은 더 이상의 지불 능력을 상실한 공동체를 대신해 개인의 재산이나 빚을 내어 할당량을 채워야 했고, 이로 인해 파산 상태에 이르기도 했다(Premo 2000, 90-91).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지역에서 카시케들은 스페인 공화국과 원주민 공화국이라는 상이한 두 세계를 중개하는 위치를 이용해 토착 물건이나 원주민 노동력을 시장에 공급해 이윤을 창출하고 자본을 축적했으며, 더 나아가 식민 체제의 원주민 사회를 대변하는 핵심적인 권력층으로서 보다 포괄적인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혜택을 누렸다(Asin 2001, 685; Mumford 2009, 44-51, Saignes 1999, 66-70; Zulawski 1990, 99). 따라서 카시케라는 직위를 유지하거나 확보하는 것은 상류층 엘리트들이 식민 체제에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수단이었고, 이런 점에서 원주민 여성 카시케와의 혼인을 통한 권력 확보는 식민 시대 원주민 사회의 정치적 역학 관계의 중요한 측면을 구성했다.

카시케 여성과의 혼인 전략을 통한 원주민 정치권력 형성은 각 지역의 사회적, 정치적 맥락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됐다. 먼저 전통적인 잉카의 케추아와 아이마라 통치 가문들이 정복 이후에도 꾸준히 지방의 실세로서 영향력을 장악하고 있던 쿠스코와 티티카카 일대에서 원주민 여성 카시케들과의 혼인을 통한 카시케 직위의 획득은 기존의 상류층 원주민들이 기득권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확장하는 수단이 되었다. 예를 들어 18세기 중엽에 티티카카 일대의 아산가로 아난사야 구역의 초케우칸카 가문의 경우, 블라스 초케우안카(마리아 테레사의 남자 형제)는 카라부코 공동체(호수 동쪽으로 50마일 정도 거리에 위치)의 카시케의 딸인 마리아 시냐리아와 결혼을 했고, 마리아의 어머니인 페르난데스 추이는 락사 공동체(호수 남쪽에 위치) 카시케 가문 출신이었다. 페르난데스 추이는 푸카라니와 코파카바나의 카시케 가문 출신과 혼인했다. 그리고 이러한 혼인을 통한 카시케 가문들과의 결합의 결과로 수천 명의 원주민들은 혼맥으로 결합된 소수 카시케 가문들의 통치를 받게 되었다

(Garrett 2008, 571). 한편 포토시 미타요 징집을 위한 핵심적인 대상 지역이었던 쿠스코와 티티카카 일대의 고산지대 공동체들에서 원주민 여성 카시케와의 혼인은 일반 원주민들이 통치 권력을 획득하여 일종의 계층 이동을 실현하는 수단이 되기도 했다. 예를 들어 1700년대 중반 마랑카 지역에서 발타사르 마마니는 루루카치니 공동체를 통치했으며, 이는 루루카치니 카시케의 딸인 세실리아 포코와의 혼인을 통해서였다. 그들이 아들에게 카시케 직위를 물려주려 하자 공동체의 수십 명의 남성들이 이를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했는데, 그 근거는 발타사르 마마니가 루루카치니 공동체 출신이 아닌 이주 원주민(포라스테로)이었기 때문이었다(Garrett 2008, 570). 이 사례는 기존의 카시케 지배 계층의 영향력이 강하지 않은 지역의 경우 권력 기반이 전혀 없었던 포라스테로와 같은 외부인도 카시케 여성과의 혼인을 통해 권력 기반을 형성하고 새로운 권력 집단으로의 이동을 도모하는 관행들이 있었음을 시사한다.²⁶

식민 시대 안데스 원주민 여성들의 카시케 직위 계승과 권한 수행은 스페인의 가부장적 젠더 관계가 원주민 여성의 정치적 참여를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했으며, 식민 체제를 구성하는 이질적이고도 다양한 이해관계 당사자들 간의 협상과 조율의 과정에서 일부 원주민 여성들의 정치적 참여를 허용하게 되는 관행이 전통이라는 명목으로 공식적으로 허용될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여성 카시케들은 지방 권력층 가운데 매우 소수에 불과했고, 이 역시 대부분 전통적인 지방 권세가문 출신의 상류층 여성들에 제한되었다는 점에서 이들의 경험을 전체 원주민 여성의 것으로 보편화할 수 없다. 더 나아가 실질적인 권력 행사에 있어서 대부분 남성 가족 구성원들의 개입을 전제로 했으며, 여성 카시케들이 여성 구성원들의 입장과 필요를 대변하기보다는 기득권을 유지하거나 차지하려는 상류층 원주민 집단의 이해관계의 산물에 가까웠다는 점에서 이들을 여성주의 지도자라고 해석할 여지는 거의 없다. 하지만 여성 카시케들의 경험은 식민 시대 안데스에서 원주민이라는 인종적 정체성과 여성이라는 성적 정체성이 반드시 여성의 정치적 배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26 이 같은 관행이 포라스테로나 야나코나와 같은 원주민 남성들에게만 해당된 것은 아니었다. 식민 시대 중반부터 카시케들에 대한 토착민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카시케 권한의 정당성에 대한 토착민들의 도전이 불거지면서 메스티소나 크리오요 출신들까지도 원주민 여성 카시케와의 혼인을 통해 카시케의 권한을 행사하는 사례들이 빈번해졌다(Garrett 2008, 574-575; Schwartz and Salomon 1999, 483-484).

결론

잉카 이전부터 안데스 사회의 젠더 관계를 특징짓던 젠더 상보성의 논리는 잉카 제국에서도 이원론적 세계관, 양계 상속제, 성별 노동 분업 등을 통해 그 상징적, 물질적 토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아클라 제도가 상징하듯이 잉카라는 정복 세력은 여성에 대한 지배권의 행사를 통해 정복자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강화하고 재생산하려 했고, 이에 따라 젠더는 계급과 더불어 정복 사회의 복잡한 사회 위계를 규정하는 기본적인 축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젠더에 따른 계서화는 잇따르는 스페인의 정복과 식민 통치를 통해 보다 전면적이고도 집중적으로 진행되게 되었다. 이 글은 스페인령 안데스의 원주민 여성들을 사례로 해서 스페인의 정복과 식민 통치가 원주민 사회의 젠더 관념과 젠더 관계에 초래한 변화를 살펴보았다. 식민 체제에서 원주민 여성들은 원주민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정복당한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일련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박탈당했다. 하지만 여기에 스페인의 가부장제도와 이데올로기가 결합되며 원주민 여성들은 인종적 종속과 더불어 여성이라는 성적 정체성으로 인한 이중의 착취에 노출되게 되었다. 식민 체제에서도 전통적인 젠더 상보성은 토착 사회 젠더 관계의 한 단면을 구성했으며 원주민들이 개개인의 생존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생존을 이어 가기 위해 선택했던 가장 중요한 전략에 해당했지만, 젠더 상보성이 원주민 여성에게 미쳤던 파급력과 함의는 원주민 여성의 지위와 소속 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이와 마찬가지로 스페인 정복세력이 부과했던 가부장적 젠더 관념과 제도는 개별 원주민 여성들의 출신 배경에 따라 상이한 강도로 경험되었다. 여성을 열등하고 나약한 존재로 간주하는 스페인의 젠더 관념은 공적 영역에서 원주민 여성들의 권리를 제한하고 배제하는 논리로 작용했으며, 더불어 두 개의 공화국 체제에서 시행되었던 동일 인종 혼인 장려 정책과 정통성이라는 개념은 스페인 정복자들의 성적 착취에 노출되었던 원주민 여성들이 법적 배우자로 인정받지 못한 채 첩이나 정부 또는 단순한 성적 탐닉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되는 근거로 작용했다. 스페인의 젠더 관념과 혼인 제도가 원주민 여성 전반의 기회 박탈과 차별로 이어졌음에도 그 구체적인 방식은 개별 여성의 출신 배경이나 소속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일부 상류층 원주민 여성들은 새로운 체제에서 부여받았던 조세 면제나 사유재산 상속권 등의 권리 이외에도 스페인 세력가들

과의 혼인과 이를 통한 인맥 형성을 통해 정치적, 정치적 기득권으로의 편입을 시도하기도 했다. 가부장적 젠더 관념과 제도는 정치적 영역에서 가장 혹독하게 적용되었으며, 원주민 여성들은 다른 인종의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원주민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공적 영역에서 배제되고 권한을 박탈당했지만, 젠더 상보성에 근거하는 카시케 직위의 양계 상속 제도는 일부 상류층 원주민 여성들이 남성 가족 구성원의 개입을 통해서일지라도 지도층으로서 공적 영역에 참여하고 지도권을 행사하는 근거로 작용했다. 카시케 제도는 식민 시대의 가부장적 체제에서도 상보성에 토대를 둔 전통적인 젠더 관계가 비록 제한적이었지만 공식적으로 승인되고 존중되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젠더 상보성의 논리가 원주민 여성들이 정치적 배제와 차별에 대응하여 권리를 지켜내기 위한 논리로 작용했던 반면에 때로는 원주민 여성들에게 부과되는 이중의 경제적 착취를 정당화하는 논리가 되기도 했다. 이는 원주민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던 여성들의 사례에서 두드러졌는데, 식민 체제가 부과하는 과도한 조세 납부의 의무가 개별 원주민 가정뿐만 아니라 원주민 공동체의 생존을 위협함에 따라 원주민 여성들은 미타, 엔코미엔다, 오브라헤 등의 강제 부역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노동력을 제공하는 동시에 이탈하는 남성 원주민들을 대신해 원주민 공동체의 생산과 재생산을 책임지게 되었고, 더 나아가 인디오 데 플라타와 같은 변칙적인 관행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되기도 했다. 이처럼 식민 체제의 자본주의 경제는 정복자와 피정복자 간의 호혜적인 관계를 파괴하고 원주민 여성과 남성 및 원주민 공동체 전반에 대한 착취로 이어졌지만, 때로는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의미하기도 했다. 이는 특히 도심에 거주하던 원주민 여성들의 사례에서 확인되는데, 다양한 상업 활동에 종사하는 원주민 여성들은 스페인 공화국과 원주민 공화국이라는 도식적인 두 개의 체제에 종속되는 대신 두 세계를 유연하게 오고가며 원주민이자 여성이라는 정체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시장 경제를 기회로 활용했다. 이처럼 식민 체제 원주민 사회의 젠더 관계는 상보성이나 종속이라는 특정한 관념에 의해 규정되기 보다는 상충되는 두 관념들이 복합적이고도 유연하게 결합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경험되었으며,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억압적이고 착취적인 식민 권력에 대응하여 원주민이자 여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생존을 지켜내려는 원주민 여성들의 적응력과 생존력이 자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 Asín, Fernando A.(2001), “Religión, género y construcción de una sexualidad en los andes, siglos xvi y xvii: una acercamiento provisional,” *Revista de Indias*, Vol. LXI, No. 223, pp. 673-700.
- Barragán, Rosana(2011), “The Census and the Making of a Social ‘Order’ in Nineteenth-Century Bolivia,” in Laura Gotkowitz(ed.), *Histories of Race and Racism: The Andes and Mesoamerica from Colonial Times to the Present*, Durham and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pp. 113-133.
- Burkett, Elinor C.(1977), “In Dubious Sisterhood: Class and Sex in Spanish Colonial South America,” *Latin American Perspectives*, Vol. 4, No. 1/2, pp. 18-26.
- _____(1978), “Indian Women in White Society: The Case of Sixteenth-Century Peru,” in Asuncion Lavrin(ed.), *Latin American Women: Historical Perspectives*, Westport, CT: Greenwood Press.
- Burns, Kathryn(1993), *Convents, Culture, and Society in Cuzco, Peru, 1550-1865*, Ph.D.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Cambridge, Mass.
- _____(1997), “Nuns, Kurakas, and Credit: The Spiritual Economy of Seventeenth Century Cuzco,” *Colonial Latin American Review*, Vol. 6, No. 2, pp. 185-203.
- _____(1998), “Gender and the Politics of Mestizaje: The Convent of Santa Clara in Cuzco, Peru,” *The Hispanic American Historical Review*, Vol. 78, No. 1, pp. 5-44.
- _____(2011), “Unfixing Race, in Nineteenth-Century Bolivia,” in Laura Gotkowitz(ed.), *Histories of Race and Racism: The Andes and Mesoamerica from Colonial Times to the Present*, Durham and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pp. 57-71.
- Cope, Douglas(2009), “Conclusion,” in Andrew B. Fisher and Matthew D. O’Hara(eds.), *Imperial Subjects: Race and Identity in Colonial Latin America*, Durham and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pp. 249-262.
- Deeds Susan M.(1997), “Double Jeopardy: Indian Women in Jesuit Missions of Nueva Vizcaya,” in Susan Shroeder, Stephanie Woods, and Robert Haskett(eds.), *Indian Women of Early Mexico*, Oklahoma: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pp. 254-272.
- De Moreno, Christiana Borchart(2001), “La imbecilidad y el coraje: la participación femenina en la economía colonial, Quito, 1780-1830,” in Gioconda Herrera Mosquera(ed.), *Antología género*, Quito: FLACSO, pp. 179-196.
- Emma, María(2007), “Espacios femeninos en la sociedad colonial,” in Carmen Mexa, and Teodoro Hampe(eds.), *La Mujer en la historia del Perú, siglos XV al XX*, Lima: Fondo Editorial del Congreso del Perú, pp. 191-216.
- Fisher, Andrew B., and Matthew D. O’Hara(2009), “Introduction: Racial Identities and Their Interpreters in Colonial Latin America,” in Andrew B. Fisher and Matthew D. O’Hara(eds.), *Imperial Subjects: Race and Identity in Colonial*

- Latin America*, Durham and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pp. 1-38.
- Garrett, David T.(2008), "In Spite of Her Sex: The Cacica and the Politics of the Pueblo in Late Colonial Cusco," *The Americas*, Vol. 64, No. 4, pp. 547-581.
- Gose, Peter(2000), "The State as a Chosen Woman: Brideservice and the Feeding of Tributaries in the Inka Empire," *American Anthropologist*, New Series, Vol. 102, No. 1, pp. 84-97.
- Graubart, Karen B.(2000a), "Indecent Living: Indigenous Women and the Politics of Representation in Early Colonial Peru," *Colonial Latin American Review*, Vol. 9, No. 2, pp. 213-235.
- _____(2000b), "Weaving and the Construction of a Gender Division of Labor in Early Colonial Peru," *American Indian Quarterly*, Vol. 24, No. 4, pp. 537-561.
- _____(2007), *With Our Labor and Sweat: Indigenous Women and the Formation of Colonial Society in Peru, 1550-1700*, Stanford,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 Guardia, Sara Beatriz(2002), *Mujeres peruanas: el otro lado de la historia*, Lima: Librería Editorial "Minerva" Miraflores.
- Hampe, Teodoro(2007), "Las mujeres en la cultura del Perú virreinal: imagen colectiva y participación creadora," in Carmen Mexa, and Teodoro Hampe(eds.), *La Mujer en la historia del Perú, siglos XV al XX*, Lima: Fondo Editorial del Congreso del Perú, pp. 235-280.
- Hemming, John(1993), *The Conquest of the Incas*, Basingstoke and Oxford: Pan Macmillan Ltd.
- Hernández, Francisco(2007), "La coya y el poder en el Tahuantinsuyo," in Carmen Mexa, and Teodoro Hampe(eds.), *La Mujer en la historia del Perú, siglos XV al XX*, Lima: Fondo Editorial del Congreso del Perú, pp. 63-88.
- Klein, Herbert S.(1992), *Bolivia: The Evolution of a Multi-Ethnic Society*, New York an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Kuznesof, Elizabeth A.(1995), "Ethnic and Gender Influences on 'Spanish' Creole Society in Colonial Spanish America," *Colonial Latin American Review*, Vol. 4, No. 1, pp. 153-176.
- Lavalle, Bernadr(1999), *Amor y opresión en los andes coloniales*, Lima: IEP/IFEA/URP.
- Mangan, Jane E.(2005), *Trading Roles: Gender, Ethnicity, and the Urban Economy in Colonial Potosi*, Durham and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 _____(2009), "A Market of Identities: Women, Trade, and Ethnic Labels in Colonial Potosi," in Andrew B. Fisher and Matthew D. O'Hara(eds.), *Imperial Subjects: Race and Identity in Colonial Latin America*, Durham and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pp. 61-80.
- Mumford, Jeremy(2009), "Aristocracy on the Auction Block: Race, Lords, and the Perpetuity Controversy of Sixteenth-Century Peru," in Andrew B. Fisher and Matthew D. O'Hara(eds.), *Imperial Subjects: Race and Identity in Colonial*

- Latin America*, Durham and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pp. 39-60.
- Murra, John V.(2002), *El mundo andino: población, medio ambiente y economía*, Lima: IEP/Pontificia Universidad Católica del Perú.
- Orlove, Benjamin S.(1985), "The History of the Andes: A Brief Overview," *Mountain Research and Development*, Vol. 5, No. 1, pp. 45-60.
- Powers, Karen V.(2000), "Andeans and Spaniards in the Contact Zone: A Gendered Collision," *American Indian Quarterly*, Vol. 24, No. 4, pp. 511-536.
- _____(2002), "Conquering Discourses of 'Sexual Conquest': Of Women, Language, and Mestizaje," *Colonial Latin American Review*, Vol. 11, No. 1, pp. 7-32.
- Premo, Bianca(2000), "From the Pockets of Women: The Gendering of the Mita, Migration and Tribute in Colonial Chucuito," *The Americas*, Vol. 57, No. 1, pp. 63-93.
- Presta, Ana M.(2000), "Portraits of Four Women: Traditional Female Roles and Transgressions in Colonial Elite Families in Charcas, 1550-1600," *Colonial Latin American Review*, Vol. 9, No. 2, pp. 237-262.
- Quinatoa, Estelina(2009), "Mujeres indígenas del siglo XIX y mediados del XX en Ecuador," *Historia de mujeres e historia de género en el Ecuador*, Quito: CONAMU/IPANC, pp. 42-104.
- Rostworowski, María(1988), *La mujer en la época prehispánica*, documento de trabajo No. 17, serie etnohistoria No. 1, Lima: IEP.
- _____(2007), "La mujer antes de Pizarro," in Carmen Mexa, and Teodoro Hampe(eds.), *La Mujer en la historia del Perú, siglos XV al XX*, Lima: Fondo Editorial del Congreso del Perú, pp. 23-62.
- Saignes, Thierry(1999), "The Colonial Condition in the Quechua-Aymara Heartland (1570-1780)," in Frank Salomon, and Stuart B. Schwartz(eds.), *The Cambridge History of the Native Peoples of the Americas*, Part II,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59-137.
- Salomon, Frank(1988), "Indian Women of Early Colonial Quito as Seen Through Their Testaments," *The Americas*, Vol. 44, No. 3, pp. 325-341.
- Silverblatt, Irene(1978), "Andean Women in the Inca Empire," *Feminist Studies*, Vol. 4, No. 3, pp. 36-61.
- _____(1987), *Moon, Sun, and Witches: Gender Ideologies and Class in Inca and Colonial Peru*,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teele, Paul(2004), *Handbook of Inca Mythology*, Santa Barbara, Calif.: ABC-CLIO, Inc.
- Tandeter, Enrique(1981), "Forced and Free Labour in Late Colonial Potosi," *Past & Present*, Vol. 93, pp. 98-136.
- Townsend, Camilla(1997), "Story Without Words: Women and the Creation of a Mestizo People in Guayaquil, 1820-1835," *Latin American Perspectives*, Vol. 24, No. 4, Ecuador, Part 2: Women and Popular Classes in Struggle,

pp. 50-68.

- Vergara, Teresa(2007), "Aporte femenino a la creación de la riqueza," in Carmen Mexa, and Teodoro Hampe(eds.), *La Mujer en la historia del Perú, siglos XV al XX*, Lima: Fondo Editorial del Congreso del Perú, pp. 109-146.
- Zuidema, R.T.(1983), "Hierarchy and Space in Incaic Social Organization," *Ethnohistory*, Vol. 30, No. 2, pp. 49-75.
- Zulawski, Ann(1990), "Social Differentiation, Gender, and Ethnicity: Urban Indian Women in Colonial Bolivia, 1640-1725," *Latin American Research Review*, Vol. 25, No. 2, pp. 93-113.

Article Received: 2014. 10. 05

Revised: 2014. 11. 05

Accepted: 2014. 11. 11